소년단

1958. 1

이 노래를 부르자!

2. 선렬들의 열어 놓은 희망찬 앞길
걸음마다 더운 심장 높이 뛰누나.
우리들은 항일 유격 투사들의 아들딸
빛나는 애국 전통 이어 나간다.

3. 앞가슴을 헤치고서 발을 구르면
푸른 산 황금'벌이 안겨 오누나
우리들은 번영하는 새조선의 꽃봉오리
조국 통일 한길에서 싸워 나간다.

← 조각: 입단의 맹세………조 숙녀 작

앞표지: 새해의 첫인사……김 창규 촬영

소년단 1958년 1호 내용

시

새해 첫 아침 주고 받은 이야기

◇김 학 연◇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새해 첫아침 창'가에 다가 서서,
즐겁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네.
새해의 해'님도 축복해 주는듯,
아이들의 창'가를 밝히여 주네.

《얘 너, 아버지와 어머님께
세배를 드렸지………?》.
《응! 선생님한테두 벌써
세배를 드리구 왔어…넌?》.
《나두 이미 다 드렸어!》.

《그럼 우린
누구에게 또 세배를 드릴가.…?》
푸른 카텐은 날리여
아이들의 어깨 우에 춤추네
이리 갸웃 저리 갸웃
아이들의 생각을 따라서 날으네
《옳아! 옳아! 그 분들께두
세배를 꼭 드려야 해!》.

아이들의 눈 앞에 떠올라라……
춥고 추운 눈 나리는 날이나
어둡고 어두운 비 나리는 밤이나
언 땅을 헤쳐 깊이 집터를 다지고
진흙 길을 뒤번져 대통로를 열어 준,
구름 길에 높이 하늘 길에 높이
집이랑 학교랑 땀 흘리며 지어 준
건설자 아저씨들, 형님들, 누나들이….

《얘들아 그 담엔 누구에게 드리잔…?》
《이봐 이 방을 그래
누가 따뜻하게 해 주지?》.
《그야 어머니지 뭐!》.
《석탄이 없이두?》.

아이들의 눈 앞에 떠올라라….
이마에 등'불을 밝히고
깊은 땅 탄맥을 찾아
증산의 불꽃 날리는
용감하고 억세인 탄부 아저씨들!
아침 저녁 조국 땅 우에
길고 긴 렬차를 달리게 하며
광석을 녹여 쇠'물을 넘치게 하는
미덥고 미더운 아저씨들이….

《얘들아, 다음엔?》.
《얘 너희들 방직 공장을 알지?
그 곳 누나들 어때?!》.
《옳아 옳아 이 옷이랑,
그 누나들이 짠 천이지 뭐야》.

아이들의 눈 앞에 떠올라라…
날쎈 제비와도 같이
그 숱한 기대와 기대 사이를
이리 저리 예돌며 예돌며
흰 천 붉은 천 파아란 천
알락 달락 고운 천 많이도 짜서
도시와 농촌으로 보내여 주는
고마운 고마운 누나들의 모습이…

《야! 정말 세배 드릴 분이 많네
다음엔 어디루?》.

《얘 깜빡 잊었댔구나
오늘 아침두 우린 잊지 않구
밥을 먹었지? 떡두 먹구!》.
《옳지, 옳지, 협동 조합 아버지랑
협동 조합 어머니들 말이지?》.

아이들의 눈 앞에 떠올라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논밭을 갈아 씨도 뿌리고
어머니 사랑으로 랭상모도 가꾸고
강물을 끌어 수로도 열고
넓고 넓은 조합 벌마다를
풍년의 금물'결 파도 치게 하는
고맙고 고마운 그 어른들이….

《담엔 또 누구를 찾을가?》.
《얘들아! 담엔 말이야
항상 재미 있는 노래를 지어 주며
멋진 이야기를 써 주시는
작가, 작곡가 선생님들…》.
《얘들아! 그리구 또
우리네 〈교과서〉랑
〈소년단〉 잡지서껀 만들어 주시는
로동자, 기술자, 기자 선생님들…》

《아이참 그 많은 곳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다 찾니……?》.

아이들은 서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고개도 갸웃 어깨도 으쓱
그 큰 눈들을 숨벅이며
제법 어른들처럼
팔장을 끼고 생각에 잠기네….

그러다가 아이 하나
《그렇다, 얘들아 내 말을 좀 들어》
무릎을 탁 치며
창'가에 바투 다가 서며 하는 말.
《그 많은 곳, 그 많은 분
우리는 다 찾지를 못한다.
만일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
새해의 인사를 드린다면야
얼마나 얼마나들 기뻐하시겐!
그러나 아저씨들의 기쁨은
우리네 세배에 있지 않을거다》.

《그렇구말구 그렇구말구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이
정말로 훌륭한 소년단원 되여서
학습을 꾸준히 한다면
몸들을 튼튼히 키운다면
얼마나 우릴 보고 기뻐들 하실가!》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맑고 맑은 미소의 얼굴로
새해 첫 아침의 해'님을 보네.

《그러자! 그러자!
김 일성 원수님께 맹세를 드리자
새해를 맞으며 명절을 맞으며
더욱더 학습에 꾸준할 것을
더욱더 몸과 마음 튼튼히 할 것을…
그러면야 그 많은 아저씨들
존경하는 그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
참말로 참말로 기뻐들 하시겠지…?》

《옳다 옳다 얘들아
훌륭한 생각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새해 첫아침 창'가에 다가 서서
즐겁게 즐겁게 주고 받은 이야기
새해의 해'님도
기쁘게 들었네,
온 한해 해'님도
잊지를 않을 꺼네….

사회주의 건설을 돕는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은 항상 선생님에게서나 분단 시사 이야기 모임들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직접 공장이나 농촌, 건설장으로 견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나라의 더욱 행복한 앞날을 건설하기 위해 힘쓰시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눈부신 투쟁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에 사는 우리들은 제1차 5개년 계획 말에 가면 우리 나라에서 협동화를 모두 끝내고 우리 나라 농촌은 아주 부유하고 문화적인 농촌으로 된다는 것이 더욱 기뻤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끄마 5개년 계획》활동을 더 잘하여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돕기로 하였지요.

지난 해 새학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다채롭게 기념하기 위한 문제를 의논하는 모임에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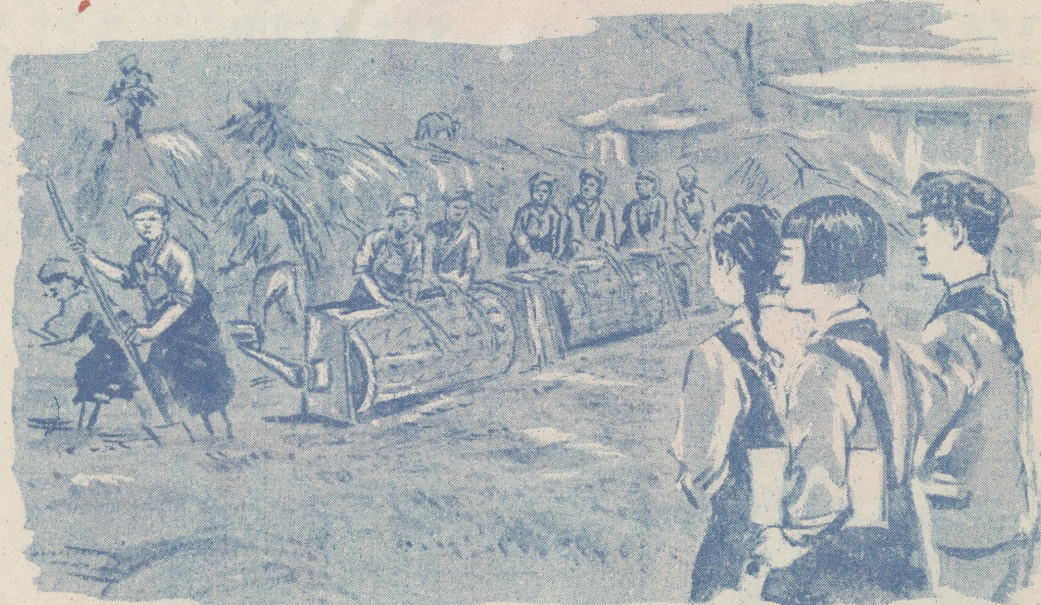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 시기의 쏘련 삐오네르들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는 일로서 아직 우리의 아버지들 중 협동 조합에 들지 않은 몇몇 아버지들을 우리들의 힘으로 들도록 돕자고 의논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러한 아버지들에게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농민들에게 베풀어 주는 고마운 시책들과 앞으로 우리 나라 농촌의 전망과 농업 협동 조합이 왜 좋은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드리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그간 우리들이 모두 힘써 온 결과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지난 해 11월 15일 벌써 우리 학교 지구 문앙 제5 농업 협동 조합에는 새로이 조합원 한 사람이 늘게 되였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 대 제5 분단 장 순자 동무의 아버지였답니다.

장 순자 동무는 대 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곧 실천에 옮겼던 것이지요.

본래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 받은 조그마한 땅뙈기 하나를 가지고 근근히 살아 오다 해방 후 토지 개혁의 혜택으로 기름진 땅을 분여 받아 살림이 펴지게 된 순자 동무의 아버지는 그 이상 더 만족한 세상은 없는 것으로만 여겨 왔습니다. 그리하여 협동 조합이 처음 조직될 때부터 아예 들 념을 하시지 않았었답니다.

—공연히 그 많은 세간 살이를 합쳤다가 어떻게 하자구— 이렇게 생각하시며 지금껏 개인 농사를 지어 왔던 것이랍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숙제를 끝낸 순자가 열심히 새끼를 꼬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린 왜 조합에 안 드나요?》

뜻하지 않은 순자의 물음에 아버지는 힐끔 순자를 돌아 보시더니만《건 또 무슨 새삼스러운 말이냐? 어서 네 공부나 잘 해라! 집 걱정은 말고, 우리야 차차 들지 무엇이 바쁘냐?》하시고는 다시금 거들떠 보실 념도 하시지 않고 계속해 새끼를 꼬아 나가시는 것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성미를 잘 아는 순자는 그러다가 아버지 비위를 거슬릴가 해서 그만 첫 날은 그 이상 더 말을 못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순자는 온 집안 식구가 모여 앉은 데서 그저 이야기삼아 분단에서 협동 조합 견학 갔던 이야기와 거기서 들은 이야기, 협동 조합이 좋다는데 대하여 해주신 선생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군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순자의 말에는 대'구도 않고 아버지하시는 일에만 열중하실 뿐이였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아버지의 고집을 굽힐 수 없다고 생각한 순자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조합에 들도록 하자고 졸라대군 했습니다.

하도 졸라대였더니 어머니는 차츰 순자의 편에 서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고집은 좀처럼 굽히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또 조합에 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셨던 아버지가 들어 오셨습니다.

《넌 또 조합에 들자는 이야기냐?》하고 순자를 바라 보시는 것이였습니다.

순자는 머뭇머뭇 어머니 얼굴만 쳐다 보았습니다.

《남의 아이들은 다 조합에 들었다고 좋아하는데 저만 축에 못 든다고 저 야단이 아니우……》.

어머니가 편역을 들어 주시는 바람에 순자는 용기를 내여 아버지에게 바싹 달라붙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진 남의 축에 들지 못하는게 좋아요! 이제 1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가면 협동화가 다 끝나구 그 집들은 모두 점점 살림이 늘어 갈텐데 우리는 개인농을 한대야 이 이상 더 나아질게 뭐 있어요》.

《글쎄 네 말이 그럴듯 하기도 하다, 그래도 5개년 계획이야 아직 몇 해는 있지 않니, 차차 보아가다 협동에 든 집들이 모두 우리 보다 썩 나아질 때 들자꾸나. 두고 보다 명년 쯤이던가 래후년 쯤에 말이다》.

이제는 아주 안 들겠다고는 하시지 않는 것이였습니다.

순자 아버지인들 어찌 협동 조합의 급속한 발전 모습을 못 보셨겠습니까!

《아버진 그저 남의 덕만 보시자는 게죠?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어가 편안히 해 보시자는 게 아니고 뭐얘요! 아버진 참……》.

《…………》.

아버지는 그만 순자의 너무 당돌한 말에 어이가 없어졌는지 더는 말씀을 하시지 못하고 멋 적으신듯 호주머니에서 담배 쌈지를 꺼내시더니 대통에 꾹꾹 담아 뻑뻑 빠시는 것이였습니다.

이렇게 늘 저녁마다 순자와 아버지 사

이에는 이야기가 벌어지군 하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아버지가 와락 성을 내시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순자는 끈'기 있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드리기도 하고 또 졸라 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도 이제는 차차 기울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순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그 날도 역시 저무도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단 둘이서 발기계로 벼를 훑느라고 비지땀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였습니다. 보기에도 안타깝기 짝이 없어 순자도 책보를 던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 드렸습니다.

그 날 저녁 아버지는 저녁상도 채 물리시지 못한채 그 자리에 누우시는 것이였습니다. 몹시 피곤하신 모양이였습니다.

순자는 참다 못해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진 조합에서 탈곡하는걸 보셨지요. 얼마나 씨원씨원해요. 그 태산 같은 벼낟가리들이 며칠 사이에 다 없어지지 않아요. 일이 얼마나 흥겨웁겠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잠시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신듯 묵묵히 천정만 쳐다 보고 계시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더니만 별안간 벌컥 일어 나시며 《네 말이 옳다. 그저 조상 때부터 부쳐 오던 땅뙈기를 놓기가 싫어 그랬구나, 그래 우리도 협동에 들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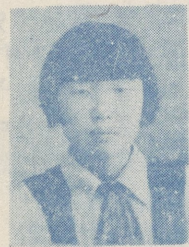
이 때의 순자의 기쁨이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힘들어 하시던 기색도 없이 그 다름으로 협동 조합 사무실로 달려 가시는 것이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여 수년 동안 고집을 써 오시던 순자 동무의 아버지가 순자의 노력으로 끝내 조합에 들게 된 것이였습니다.

× ×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학교 대에서는 장 순자 동무 뿐 아니라 제2 분단 김 락섭 동무의 아버지도 락섭 동무의 노력으로 역시 이번에 협동 조합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벽보에 실어 전체 동무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함남 리원 제5 중학교
통신원 리 철 웅

새해와 나의 결의

새해를 맞는 나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있어요. 새해에는 영예로운 민청원이 될…

그래 나는 새해 첫 아침 굳게 결의를 다졌어요.

새해에는 보다 열심히 소년단 생활에 참가하며 맡겨진 위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훌륭한 민청원으로 준비할 것을!

나는 이 결의를 꼭 실천해 낼테예요.

함남 북청군 신북청 중학교
제2학년 유 순 희

지난해 선거에서 대 위원장으로 선거된 나는 새해에도 소년단원들이 즐기는 유익하고 훌륭한 일들을 조직하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금년에 나는 인민 학교를 졸업하고 초중에 들어 가게 된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녀 온 최우등의 영예를 꼭 지키어 4년 간의 최우등생으로 초중에 진학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함북 김책시 금천 인민 학교 대
위원장 송 수 송

어머니의 첫 상금

◇조 병 권◇

밖은 벌써 캄캄하게 어두웠다. 벽에 걸린 시계가 여덟시를 알린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 오시지 않았다. 책을 펼쳐 놓고 조용히 어머니를 기다리며 공부하던 연용이의 머리에는 문뜩 지난번 어머니의 일터를 찾았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장사를 그만두고 직장으로 들어 간 이튿날 연용이는 너무 기뻐서 어머니의 일터를 찾아 갔던 것이다. 그 때 그는 건설장 로동자들 속에서 환희에 넘친 손으로 일' 손을 재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인젠 우리 어머니도 사회주의 건설자다! 그러니 나는 집에서 어머니의 일'손을 더 잘 도와야지》. 연용이는 이렇게 결심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늦어 돌아 오실 어머니의 일'손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부엌으로 내려 갔다. 연용이가 두번째 물바케트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 왔을 때 밖에서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려 왔다. 어머니가 돌아 오시는 것이였다. 어머니는 만면에 웃음을 짓고 방안에 들어서는 것이였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오냐 년말 작업 총화 회의가 있길래…》

어머니는 방안에 들어 서기가 바쁘게 작업복 호주머니에서 두툼한 돈 뭉치를 끄집어 내는 것이였다.

그것을 보자 연용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웬 돈일가? 어머니는 남몰래 또 장사를 하는게 아닐가? 아마 오늘 저녁도 그 때문에 늦어진게 아닐가? 장사를 하지 않고서야 어디서 저 많은 돈을…—이런 생각에 연용이의 얼굴은 금시에 흐려졌다.

어머니는 웃음을 지으며

《왜 자꾸 들여다만 보느냐, 어머니가 훌륭히 일했다구 나라에서 주는 상금이란다》.

《상금이라구요. 아!》.

그제야 연용이는 돈 봉투를 덥석 끌어 안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것 보세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훌륭히 일하면 나라에서는 상금까지 주는데 어머닌 직장에 들어 가면 돈 한 푼 구경 못한다구 늘 그리셨지요》.

《글쎄 내야 알았니》.

이렇게 연용이네 집에 새 생활이 꽃피여 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1월부터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연용이의 어머니는 집에다 상점을 차려 놓고 남의 눈을 속여 가

며 근로자들을 중간 착취해 오던 상인이였다. 연용이는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돈을 많이 버는 장사가 좋은일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때때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국영 상점에 가서 학습장, 연필, 담배, 빵…등을 사다가 가게' 방을 꾸려 놓으며 상점이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도 않았다.

그러나 4학년에 올라 와서 연용이는 선생님의 이야기와 대와 분단 모임을 통하여 어머니가 하는 일이 사회주의 건설에 지장을 주며 저 혼자만 잘 살려는 모리 간상 행위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더구나 작년 여름 분단에서 로력 영웅 차승수 아저씨를 모셔다 사회주의 건설에 나선 근로자 아저씨들의 눈부신 로력 투쟁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단 위원장인 연용이는 소년단원들 보기가 부끄러웠다. 그는 그 날 집으로 돌아 오자 차 승수 아저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 드리면서

《어머니도 인젠 장사를 그만두고 직장에 들어 가요》하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넌 별 소릴 다 하누나 그런 참견 말고 공부나 잘 해라》.

《가만 앉아 남을 착취해 먹는 그런 생활이 난 싫어요》.

《그게 무슨 착취냐? 다 제 로력들여 벌어 먹는데 별 소리 다 한다》.

《어머닌 나를 시켜 국영 상점에서 사 온 물건만 해도 얼마나 터무니 없는 값을 덧붙여 팔았어요, 그게 착취가 아니고 뭐예요》.

《착취구 뭐구 듣기 싫다. 에미 하는 일에 웬 참견이냐?》.

어머니가 성을 내는 바람에 연용이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연용이는 근로자 아저씨들의 로력 투쟁에 대한 이야기, 우리 나라 앞 날의 전망 등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드리며 장사를 그만 두라고 말하군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벼락같은 욕을 퍼붓군 했다.

재작년 가을이였다. 한 학급에 다니는 손 룡일 동무가 멋 있는 붉은 넥타이를 매고 학교에 왔다. 동무들은 그를 둘러 쌌다.

《야 좋은 것 샀구나, 어데서 샀니?》.

《국영 백화점에서 샀어, 하마트면 개인 장사'군들한테 속아서 비싼 값으로 살번했지. 글쎄 국영 상점 값보다 터무니 없는 값을 내라지 않겠니. 개인 장사'군들은 도적놈 마음이야》.

곁에서 이 말을 듣던 연용이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튿날 연용이는 어머니더러 새 넥타이를 사 달라고 하였다. 단 하나밖에 없는 연용이의 청이라면 무엇이나 들어 주는 어머니는 쾌히 승낙했다. 저녁 때 연용이는 어머니와 함께 어제 룡일이가 말하던 개인 상점으로 갔다. 아니나 다를가, 주인은 넥타이 값을 터무니 없이 내라는 것이였다.

《네가 어제 저녁 말하던 값과는 맞지 않누나, 그건 어데서 들은 이야기냐?》.

《그래도 우리 반, 룡일이는 그렇게 샀다는데요… 오라, 백화점에서 샀다나 봐요》.

어머니와 연용이는 국영 백화점으로 갔다. 백화점에는 개인 상점에 있는 것과 꼭 같은 붉은 넥타이가 있었는데 참말 값도 어제 저녁 연용이의 말과 꼭 맞아 떨어졌다.

《하마트면 그 집에 속아 넘을번 했구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 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그 날 밤 연용이는 어머니더러

《보십시요 어머니, 국영 상점의 것을 사다 놓고 터무니 없는 값을 덧붙여 팔아 먹는 아까 그 장사'군이 얼마나 미워요. 남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밉게 볼 터인데 어서 우리도 그런 일을 그만 둡시다》.

이 말에 어머니는 묵묵히 앉았을 뿐 다른 말이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겼던 어머니는 드디여 남은 물건이나 다 팔고는 장사를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돈을 많이 남길 수 있어 뵈는 상품을 보면 다시 사 놓군 하는 바람에 가게' 방의 상품은 줄어들 줄 몰랐다. 연용이는 막 안타까웠다.

지난 해 여름부터 연용이는 어머니에게 평양신문을 사다 드리였다. 때때로 일부 개인 상인들의 모리 간상 행위를 폭로한 기사를 읽어 드리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장사에서 손을 떼려 하지 않았다. 지난 해 초가을 어느 날이였다. 연용이는 제가 오늘은 당장 상업부에 가서 폐업장을 내겠다고 어머니더러 영업 허가장과 어머니의 도장을 내달라고 조르다가 그만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듣고 조반도 먹지 않은채 학교로 가 버렸다.

활기 없이 집문을 나서는 연용이의 뒤'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에 잠기는 것이였다.

어머니는 전체 인민들이 모든 난관과 애로를 이겨 내면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힘쓰고 있는 이 때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모리 간상 행위를 하여 온 것이 잘못이였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행복한 장래를 위하여 떳떳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나설 것을 결심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날 상업부로 찾아 가서 곧 폐업장을 내였다. 그 후 어머니는 토건 생산 협동 조합의 로동자로 들어 갔다. 어머니는 매일 자기 계획을 넘쳐 실행하여 오늘은 이렇게 많은 상금까지 받게 되였던 것이다.

《어머니 이 돈으로 무얼 사시려우?》.

《먼저 네 양복 한 벌만 사고 남는 돈은 몽땅 저금하자꾸나》.

이렇게 주고 받는 어머니와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새 생활의 기쁨이 넘쳐 흘렀다.

(유 연용이는 평양 제 6 중학교 제 1학년 학생이다)

민청원이 되려면

◇중앙 민청 조직부 부부장 정 동 식◇

민청원!

이것은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동무들은 소년단원이 될 때 벌써 이 자랑스러운 이름을 지닐 데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결심을 다졌을 것입니다. 그 때 동무들은 앞으로 민청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훌륭히 이어 나가기 위하여 소년단 생활에서 잘 준비하자고 결심을 굳게 다졌으니까요.

해마다 소년단에서 훌륭히 자라난 소년단원들이 민청원으로 되여 영광에 찬 민청의 전통과 업적을 빛나게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민청 규약과 소년단 규정에 《소년단은 민청의 교대자》라고 밝혀 있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년단원은 만 14세가 되면 소년단 대 위원회와 민청원 한 사람의 보증을 받아 민청에 가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년령만 되면 저절로 민청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단원이 민청원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소년단 생활을 통하여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년단에서 훌륭히 준비하면 준비되는 대로 누구나 다 민청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소년단원이 영예로운 민주 청년 동맹의 맹원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가요?

먼저 민청이 어떤 단체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민청은 자기 조직에 우리 나라의 모든 청년들을 단합하고 있는 단체로서 조선 로동당의 충직한 후비대입니다. 때문에 민청원은 로동당의 가르침을 따라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훌륭한 조국의 아들, 딸들입니다.

금년 1월 17일로 창립 열두 돐을 맞는 민청은 빛나는 업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민청이 걸어 온 빛나는 력사우에는 민청 창립 10주년에 수여 받은 국기 훈장 제 1급이 빛나고 있으며 수 많은 영웅들과 로력 혁신자들의 투쟁 업적이 기록되여 있습니다.

이렇듯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빛나는 민주 청년 동맹의 맹원으로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로운 일입니다.

이 영예를 지니기 위해서는 민청원의 임무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민청원의 임무는 소년단원 때와는 달리 자기의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튼튼히 다진 체력으로 직접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과 그를 지키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어렵고 복잡하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소년단원들도 이제 민청원이 되여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민청원이 되기 위하여 소년단원 시절부터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은 정책을 항상 잘 배우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습을 더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국과 인민에게 훌륭히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애국적인 혁명 투사들과 전투 영웅, 로력 영웅들의 애국적 모범을 잘 배워서 그들처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 줄 알며 조국과 인민의 원쑤를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민청 형님, 누나들의 애국적 활동을 연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청원이 되기 위해서는 로동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동이야 말로 우리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조국의 인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석탄을 더 많이 캐기 위하여 민청원들이 송남으로 달려가 청년 탄광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동무들은 알 것입니다. 민청 형님, 누나들의 이런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민청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동무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서로 힘을 합하여 훌륭히 해 나가는 기풍을 키우며 동무들이 나쁜 행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 주고 혹 나쁜 행동에 기울어질 때에는 서슴 없이 비판하여 고쳐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동무를 사랑한다고 하여 동무의 잘못을 숨겨 주어서는 참된 벗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과 이웃에서 벌어지는 낡은 것들도 숨기지 말고 고쳐 주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아직도 개인농으로 있거나 개인 상공업을 하는 부모들을 사회주의의 옳은 길로 나가도록 잘 깨우쳐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민청원으로 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조직에 대하여 책임감을 높이며 조직의 규률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준비되기 위하여서는 소년단의 대, 분단, 반 생활에 잘 참가하며 또 소년단의 위임을 어김 없이 실천함으로써 민청원이 된 후에도 민청의 규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청의 규약을 꾸준히 학습하여야 합니다.

민청원이 되기 위한 이 모든 준비는 소년단 생활에 잘 참가하면서 민청 형님, 누나들의 모범을 배우기 위하여 힘쓰면 갖추어집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더욱 열심히 참가하며 훌륭히 준비함으로써 영예로운 민청원이 되기 위하여 꾸준히 준비합시다.

고향의 력사를 연구한다

황해남도 옹진군 해방 인민 학교 대에서
◇박 정 렬◇

몇해 전부터 서해를 끼고 수뢰봉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자랑찬 이야기—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에 귀담아 오던 이 곳 소년단원들은 향토 연구를 위한 사업을 다채롭게 지행해 왔습니다.

소년단 실에 들어서면 먼저 우리의 눈을 끄는 고향의 사판이며 향토 연구록 등은 이들의 솜씨로 이루어진 것들이랍니다.

얼마 전에도 이들은 《우리 고향의 지리적 조건》, 《우리 마을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이야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 준비를 위하여 향토 연구 크루쇼크원들은 마을의 늙은이들을 찾아가 지난 날의 고향과 오늘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미제와 리승만 통치를 반대하여 우리 빨찌산 아저씨들이 용감히 싸우던 전적지 수뢰봉 답사도 했습니다.

저마다 기다리던 이 빨찌산 전적지 답사에서 특히 소년단원들의 가슴을 울린 것은 리 종옥 아저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때 젊은 빨찌산 대원이였던 리 종옥 아저씨는 수뢰봉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백년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쫓겨 간 미국놈들과 리 승만 도당들은 지금 도섬에 둥지를 틀고 있으면서 인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전쟁 전까지 이 곳은 38선 이남으로 리 승만 괴뢰 정부의 통치 밑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200여 호가 넘는 마을에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란 다섯 명 밖에 안 되였지요. 그러니 마을 농민의 거의 전부가 김 형균이라는 지주의 소작농이 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8.15 해방과 함께 토지 개혁으로 땅의 주인이 된 이웃 마을인 태탄군 농민들의 펴여만 가는 살림을 이 곳 농민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해마다 피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도 쪼들려만 가는 살림?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이 곳 농민들은 점차 깨닫게 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을에는 애국적인 농민들로 유격대가 조직되였습니다.

놈들의 탄압 밑에서도 유격대 아저씨들은 거리에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만행을 폭로하는 삐라를 뿌리며 북조선에서처럼 인민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선전했습니다.

이것을 눈치 챈 놈들은 자기들의 비위에 걸리는 사람이면 《빨갱이》라면서 닥치는 대로 잡아가며 집을 불살라 버리군 했습니다.

그러나 놈들의 이런 만행은 농민들에게 더욱 불타는 증오심을 불붙게 할 뿐이였습니다.

밤마다 유격대를 찾아 수뢰봉에 오르는 농민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1947년도 거의 다 가는 겨울 어느 날 드디여 유격대 아저씨들은 마을에서 리 승만 도당의 악질 관리인 구장과 지주놈을 몰아내고 마을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날부터 이 곳 농민들의 오랜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을 해방시킨 유격대는 밭가는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고 마을에다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때부터 농민들은 땅의 주인이 되였으며 학교 문 앞이라고는 가 보지도 못하던 어린이들은 학교를 다니게 되였으며 학교에는 소년단 단체도 조직되였습니다.

이처럼 이 마을은 벌써 47년도에 리 승만 도배를 물리치고 해방된 인민들의 손으로 인민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잇닿은 이웃 마을에는 여전히 놈들이 도사리고 앉아 갖은 발악을 다하였습니다.

밤이면 《국군》놈들과 경찰놈들이 대포와 많은 무기를 가지고 무리를 지어 습격해 오군 했습니다. 그러나 놈들이 제아무

리 발악하여도 사랑하는 고향을 지켜 용감히 나선 우리 유격대 아저씨들 앞에서 무리 죽음을 당할 뿐이였습니다. 그럴 수 밖에 싸움이 벌러질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힘을 모아 유격대에 탄환을 날랐고 어머니들은 밥을 짓군 했습니다. 이 때 해방 인민 학교 대위원장이였던 채 광열 동무와 김 창준, 손 윤성 동무들을 비롯하여 많은 소년단원들도 밤이면 유격대 아저씨들의 련락을 도와 드렸습니다.

1948년에 이르면서 유격대는 더욱 커 갔습니다. 마을 농민들과 련계 밑에 한동, 룡천 등지의 주재소를 습격하고 놈들을 처단한 후 무기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유격대는 강산막 전투에서도 괴뢰군 한 개 소대를 쳐부시고 수 많은 무기와 탄약들을 로획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놈들은 빨찌산이 무서워서 다시는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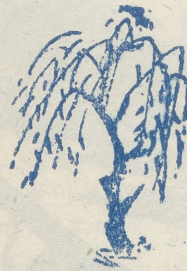
우리 인민 군대에 의하여 이 곳이 완전히 해방되는 날까지 이 곳 농민들은 갖은 난관을 이겨내고 낮이면 농사를 짓고 밤이면 고향을 지켜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이 고장을 지금 해방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고향은 영웅적인 이야기가 깃든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때문에 이 곳 소년단원들은 자기네 부모들이 피로서 지켜 싸운 고향의 력사를 배우며 더 없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지켜낸 우리 고향 땅의 앞날의 주인이 될 동무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여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침략자 놈들에게도 우리의 고향 땅을 다시는 내주지 않도록 지키며 더 살기 좋은 농촌을 세워 나갑시다》.

오늘도 이 곳 소년단원들은 수리봉 답사 때에 하신 리 종옥 아저씨의 이야기를 고향의 사판 앞에서 다시금 명심해 둡니다.

우화

사방으로 낸 대문

◇우 봉 준◇

새 집을 짓느라고 뚝딱거리던 오 서방은 대문 세울 자리를 한참 궁리하다가 제 맘에 드는 서 쪽에다 내기로 하였습니다.

때마침 집 앞을 지나 가던 박 서방이 이것을 보고 간참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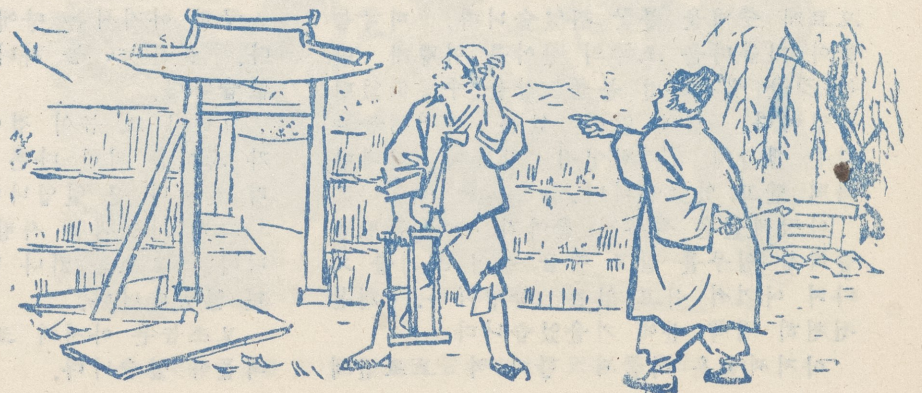
《여 여보게 대문을 서 쪽으로 내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동 쪽으루 내야 떠오르는 아침 해를 제일 먼저 받아 들일게 아닌가》.

박 서방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 싶어 오 서방은 서 쪽에 내였던 대문을 떼여다 동 쪽에다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문이 거의 다 돼 갈 무렵 난데 없이 진 서방이 나타나더니 곰방대를 휘두르며

《이 사람, 옛적부터 집 대문은 남향에다 내지 않던가. 그런데 자네는 대문을 어데다 세우는겐가, 허 참 별 일을 다 보겠군》.

진 서방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 오서방은 이번에는 남 쪽에다 대문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남 쪽을 향한 대문이 거의 돼 갈만 했을 때였습니다. 오 서방이 새로 세우는 집 구경을 나온 송 첨지는 입맛을 다시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 서방, 이 더운 삼복에 대문을 남 쪽으로 내면 어떡한단 말인가, 북 쪽으로 내야 시원한 바람이 불어 들게 아닌가》.

듣고 보니 송 첨지의 말도 그럴듯 하였습니다. 오 서방은 북 쪽에다 대문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 때 오 서방의 마누라가 나서면서 말 깃을 달았습니다.

《여보, 우물'길 가깝고 논 길 가까운 서 쪽에 대문을 낼게지 북 쪽에다 대문을 낼게 뭐란 말요. 당신은 겨울에도 북 쪽 바람이 시원할 것 같수》.

마누라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던 오 서방은

《옳지, 좋은 수가 있네, 거 사방에다 골고루 대문을 내면 모든게 다 편리하겠는 걸》.

그래서 오 서방은 마침내 사방에다 모조리 대문 하나씩을 세웠습니다.

× ×

주'대 없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 오 서방도 오 서방이려니와 남의 사정은 털끝만치도 알지 못하면서 이렁궁 저렁궁 입방아만 찧는 사람들의 반성을 위해서, 진정 그런 마음에서 나는 이 우화를 쓴다.

적후 백리

—리 구화 영웅의 투쟁기 중에서—

◇김 영 식◇

전선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면 가을마다 빨간 단풍들이 산기슭에 곱게 타오르고 푸른 하늘에는 기러기들이 의좋게 떼를 지어 날았건만 리 구화 아저씨가 쉬고 있는 전선의 가을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미군놈들의 휘발유탄에 아름다운 단풍들은 거멓게 불타 버리고 샘물이 돌돌 흐르던 골짜기들에는 전쟁의 검은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히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구화 아저씨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였습니다. 미국놈들이 아름다운 조국의 산야를 이렇게 만든 것을 생각하면 분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옆에 앉아 있는 아저씨들도 같은 생각에 잠겨서인지 말없이 담배만 빽빽 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적후에 들어가 적의 후방을 습격할 임무를 맡고 지금 밤이 오기를 기다려 여기서 쉬고 있는 참입니다. 해는 천천히 서쪽 산에 기울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어둠과 함께 적 보초선에 접근하였습니다. 어디를 보나 캄캄하였습니다. 맨 앞을 구화 아저씨가 기여 갔습니다. 아저씨는 철조망을 끊고 지뢰를 해제하면서 조심조심 기였습니다.

다른 아저씨들은 구화 아저씨가 늘어 잡은 줄을 톡톡 치면 조금씩 전진하군 하였습니다. 잘못하면 놈들에게 발견되니깐요. 숨도 크게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뢰를 다 해제하였을 때였습니다. 저 쪽 기슭에서 미군 보초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화 아저씨는 땅에 납작 엎디였습니다. 물론 그 놈 하나쯤 아저씨에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놈이 겁이 나서 총을 쏜다든가 소리를 치면 다른 놈들이 우—하고 달려 올테니 큰 일입니다.

그래 아저씨는 사방을 잘 살펴 보았습니다. 보초놈 하나 밖엔 사람의 그림자란 없었습니다.

보초놈은 아저씨 코 앞까지 걸어 왔다가 되돌아 섰습니다.

이 때라고 생각한 아저씨는 몸을 일으키며 총탁으로 그 놈의 뒤통수를 깠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그 놈의 아가리에 수건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 놈은 끽 소리도 못하고 쭉 늘어졌습니다.

이리하여 아저씨들은 그 날 무사히 보초선을 뚫고 적후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날이였습니다. 캄캄한 야밤 륙십리나 먼 적후에서 갑자기 쿵! 쿵! 하고 요란한 폭발 소리가 나더니 미군놈들이 잠들고 있던 천막이 네 개나 온데간데 없이 날아났습니다.

300놈이나 한꺼번에 하늘로 날아난 이 사건으로 미군놈들은 벅작 고아대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였어요. 폭발이 일어날 때 천막 곁에는 네 명의 미군 보초병이 서 있었지만 그들은 누가 어느 사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다만 변소에 나왔던 졸병 하나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놈의 말에 의하면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번개같이 저 쪽 산기슭으로 달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헌병놈들은 《번개같은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인차 그 산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숲 속을 샅샅이 들추었습니다.

그러나 《번개 같은 사람들》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근처 산이란 산은 몽땅 포위하고 뒤졌으나 그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밤이였습니다.

《번개 같은 사람들》은 30리나 더 깊은 적후에 나타나서 신작로 옆에 엎디고 있었습니다. 모두 네 사람이였습니다.

그들은 신작로로 오고 가는 자동차들을 주의 깊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은 모두 맞은편 골짜기에 들어 가고 거기서 짐을 싣고 나오군 하였습니다.

《동무들! 바로 저기에 놈들의 군수 창고가 있는 것 같소. 가 봅시다》. 이렇게 소근거리며 일어서는 앞에' 사람을 따라 세 사람의 그림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길옆 개울을 따라 골짜기로 올라 갔습니다.

골짜기에는 넓다란 마당이 있고 마당에는 숫한 자동차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큰 군수 창고였던 것입니다.

《동무들! 짐을 제일 많이 실은 자동차를 골라 두 대씩 까시오》. 앞에'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따바리는 운전대와 바퀴에 쏘시요, 그리고는 곧 저 쪽 산 기슭에 모이시요》.

… 그로부터 3분이 지났습니다. 마당에서는 요란한 수류탄 소리가 나고 아홉 대의 자동차가 산산 쪼각이 되여 날아 났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에 실었던 탄환까지 막 터지는 바람에 골짜기는 금시 꺼지는 듯 하였습니다.

아저씨들은 모두 무사히 약속한 장소에 모여서 의기양양하게 자동차를 까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무들! 바로 저기에 놈들의 군수 창고가 있는 것 같소!》☆

그런데 한 아저씨만은 자동차를 더 마스지 못한 것을 몹시 섭섭해 하였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구화 아저씨는 오히려 허허 웃었습니다.

《섭섭해 말게, 적후에는 잡을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깐! 이렇게 가다가 땅크를 만나면 땅크를 까고 포를 만나면 포를 까면 되지 않소…》.

이 《번개같은 사람》들이 바로 리 구화 아저씨와 그의 전우들이였습니다.

리 구화 아저씨의 용감하고 대담한 습격에 적들은 치를 벌벌 떨었답니다.

◇구화 아저씨는 아홉살 때 혼자서 밤에 십리나 되는 산'길을 넘어 의사를 데려 왔다◇

리 구화 아저씨의 용감한 이야기는 전투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도 있었답니다.

그것은 아홉살 때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시고 없는 날 밤 갑자기 동생이 앓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열이 너무 나서 숨쉬기마저 가빠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물에 젖힌 수건을 동생의 머리에 자주 갈아 대며 혼자서 애를 태웠습니다.

어린 구화 아저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 처음 생각하여 낸 것이 의사를 데려 올 생각이였습니다. 의사는 십리나 되는 산 넘어 있었습니다. 그 산을 넘어야 할 생각을 하니 아저씨는 저도 모르게 몸서리가 쳤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앓는 것을 보고 그 대로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성냥을 줘요. 내 갔다 올게》.

《무슨 성냥이냐? 어데로 갈려구!》.

《어머니 의사를 데려 오겠어요》.

《의사를! 그만 두어라. 어떻게 혼자서 간다구 그러니…이 밤에》.

그러나 아저씨는 벌써 일어나 옷을 입는 것이였습니다.

《어머니 근심 말아요. 무섭지 않아요, 내 곧 갔다 올게요》.

어머니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아저씨는 줄달음쳐서 산을 넘어 가 의사를 데려 왔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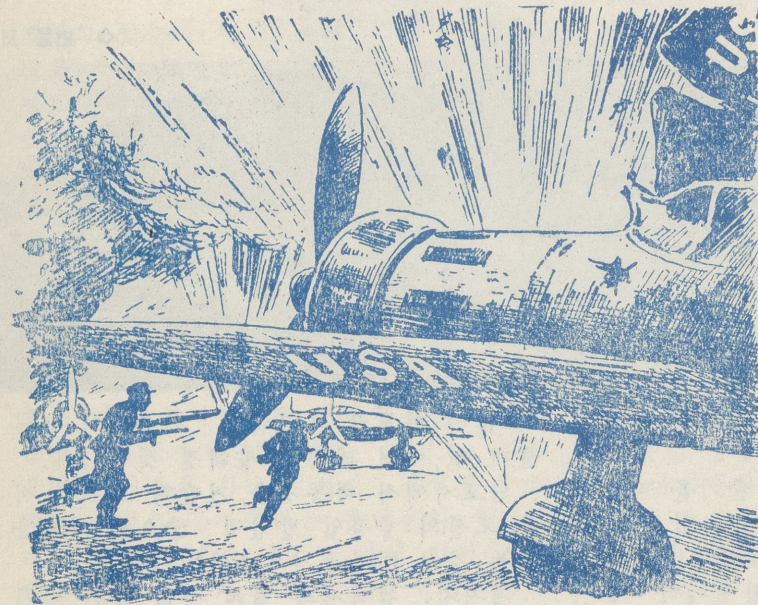
…아저씨들은 남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걸어 갔습니다. 아저씨들이 산을 두개 넘었을 때였습니다. 오른 쪽 캄캄한 하늘에 웬 불빛이 이따금씩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동차 불빛은 아니였습니다. 무슨 불빛일가?

아저씨들은 방향을 바꾸어 그 쪽으로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행장이 아니겠습니까. 밝은 불빛은 비행장 싸찌라이트였던 것입니다.

비행장에는 커다란 폭격기 한 대와 얄미운 정찰기 두 대가 있었습니다.

《야아! 네놈들을 잘 만났다》. 아저씨들은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차 달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연구 없이 덤벼 들면 실수하기 쉬우니깐요. 그래 구화 아저씨는 혼자서 더 가까운 곳까지 기여가 비행장을 살펴 보았습니다.

비행장이니 만치 놈들의 경계도 무시무시 했습니다. 수십명의 보초들이 둘러 서고 싸찌라이트는 개미도 얼씬 못하게 비행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비행장 한 쪽 구석에는 중기와 경기도 네 대나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잘못하다간 그 밝은 불빛 속에 들고 중기와 경기의 사격을 받을 판이지요. 그러나 아저씨는 조금도 겁나하지 않았습니다. 이 놈의 비행기들이 바로 내'가에서 목욕하던 우리 어린이들을 폭격한 놈들이고 우리의 집들과 살림을 불태운 놈들이라고 생각하니 이가 갈릴 뿐이였습니다. 아저씨는 비행장을 찬찬히 살피며 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분 후에 아저씨들은 한데 모였습니다.

아저씨들의 손에는 수류탄이 쥐여 있었습니다. 구화 아저씨는 비행장의 이 구석 저 구석을 가리키며 아저씨들에게 습격 임무를 주었습니다.

《만일 발견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꼭 저 놈의 비행기에 수류탄을 던지시요》 구화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아저씨들은 곧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발견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데서는 앉은걸음을 하고 어떤 데서는 배밀이를 하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가만가만 비행장에 접근해 갔습니다.

그러는데 별안간 위익—하고 호각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아저씨들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벌써 늦었지요. 싸찌라이트가 아저씨들의 등을 비치더니 중기와 경기들이 불을 내 뿜었습니다. 탄알은 윙윙 소리내며 날아 왔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구화 아저씨는 생각하였습니다.

(비행기에 빨리 접근하면 어떨가, 그러면 놈들은 비행기에 맞을가봐 사격을 중지하지 않을가?). 여기까지 생각한 아저씨는 벌떡 일어 서며 웨쳤습니다.

《동무들! 비행기에 접근하라, 빨리 접근하라!》. 그러자 다른 아저씨들도 날쌔게 비행기에로 달려 갔습니다. 정말 구화 아저씨의 생각은 꼭 맞았습니다. 놈들은 비행기에 맞을가봐 사격을 뚝 멈췄던 것입니다.

아저씨들은 재빨리 비행기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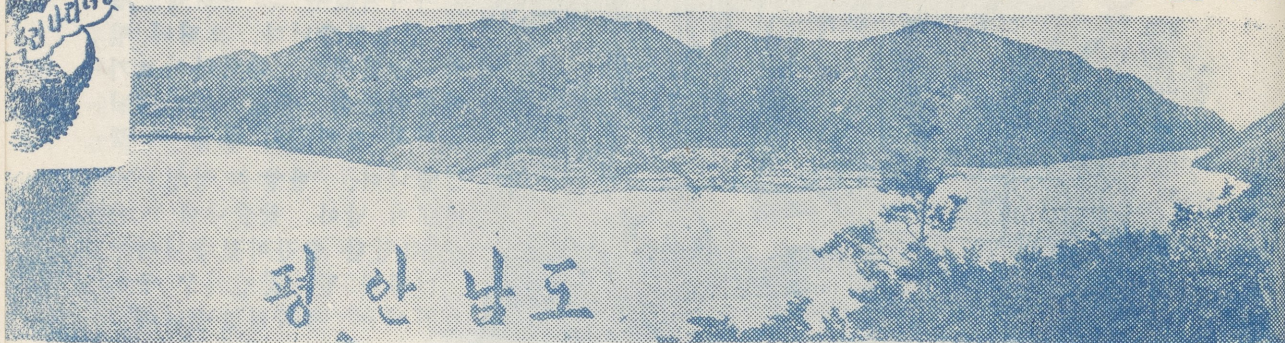
꽝—꽝 하고 비행기들은 휘발유 땅크가 터지면서 무서운 소리를 내며 폭발되였고 불'길은 하늘 높이 솟아 올랐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비행장을 덮었습니다. 겁에 질려 총을 꺼꾸로 메고 허둥지둥 뛰여 다니는 미국놈들의 꼴은 정말 볼만도 했습니다.

반 동무들이 함께 모여 앉아 흥미있는 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부터 백까지의 수'자를 모두 합하면 얼마일가요?》.

문제는 아주 헐한 것 같습니다. 모두 저마다 먼저 맞추려고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동무는 5분도 못되여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답은 5,050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었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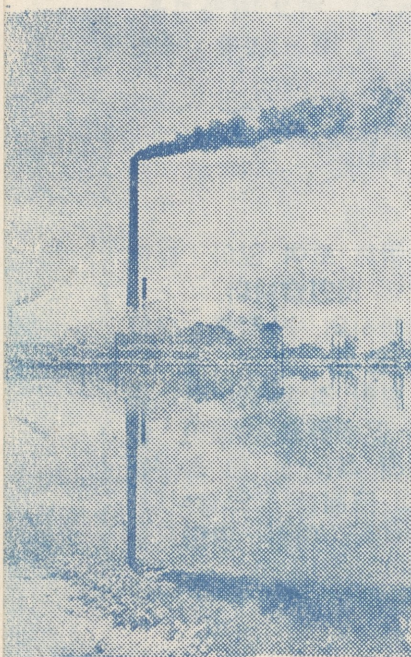
◇ 연풍 저수지

평안남도

소년단원 동무들! 조국의 지도를 펼치고 평안남도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대동강 물줄기를 따라 오르면서 평안남도를 려행하기로 합시다.

대동강 푸른 물이 서해와 잇닿은 곳에 우리 나라 서해안의 중요한 항구이며 공업 도시인 남포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포시는 평안남도에서 제일 가는 도시이지요. 여기에는 남포 유리 공장, 남포 전극 공장, 남포 조선소를 비롯한 공업 기업소들이 해방 후 새로 건설되였고 남포 제련소는 최신식 설비로 복구 확장되고 있습니다.

남포 유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리는 우리 나라에서 쓰고도 남아서 외국에까지 수출하고 있지요. 그리고 남포 제련소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제련소로서 동, 연, 아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남포 제련소 ◇

남포시는 서해안에서 수산업의 중심지로 되고 있으며 또 외국과의 무역이 빈번하여 머지 않아 만톤급 기선들이 자유로이 드나들게 될 때면 더욱 번창해질 것입니다.

남포시에서 대동강을 거슬러 오르면 서부 조선의 중공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노는 강선 제강소가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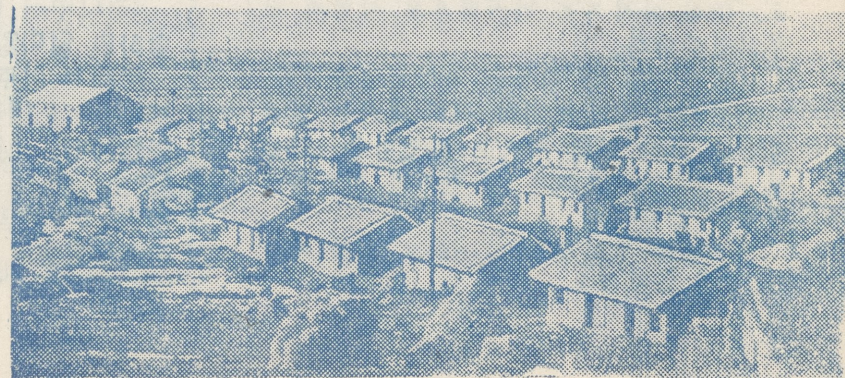
청진시, 김책시와 함께 우리 나라 강철 생산 기지의 하나인 여기에서는 각종 강괴들과 압연 제품들이 생산되지요.

강선 제강소에서 강물을 따라 약간 내려 가면 대안 전기 공장이 언덕 우에 솟아 있습니다. 이 공장은 각종 전동기와 변압기를 비롯한 수많은 전기 기계 기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동강을 따라 오르면 강동, 승호, 강남, 대동, 강서 등 평안 남부 탄전 지대에 이릅니다. 이 남부 탄전은 순천, 은산, 북창, 신창, 개천, 덕천 등 북부 탄전 지대와 함께 약 8억톤의 무연탄이 매장되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해부터 민청 형님들의 손으로 새로 개발되는 송남 청년 탄광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이제 3～4년 후이면 년산 40～50만톤의 석탄을 캐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평안남도는 우리 나라 무연탄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안주 탄광에서는 유연탄이 생

◇ 남칠 농업 협동 조합에서 새로 지은 주택들 ◇

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부 조선의 철도용 석탄으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이 지대에서 년산 60만톤의 유연탄을 캐게 될것입니다.

◇ 신창 탄광 ◇

순천에는 평남도에 풍부한 무연탄을 원료로 하여 카바이트와 석회질소를 생산하는 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일찌기 건설된 승호 지구 쎄멘트 공장에서는 만달산의 석회암과 강동 탄광에서 나는 석탄에 의하여 질 좋은 쎄멘트를 다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안남도에는 널리 알려지고 있는 통성 육류 가공 공장이 있으며 금을 비롯한 각종 지하 자원들이 풍부히 매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간석 지대에서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소금 생산의 약 85%를 여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평안남도에서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시책과 쏘련의 원조로서 중공업과 경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으로 려행하기로 합시다. 평안남도는 우리 나라 농업 생산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도입니다. 우선 평안남도의 농촌을 려행하려면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 평남 관개 시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남 관개 공사는 대동강과 청천강 물을 끌어 올려 2천리 긴긴 수로를 통하여 안주, 문덕, 숙천, 평원 일대 열두 삼천리'벌에 대이고 3만 정보의 밭을 논으로 풀어 6만여 톤의 벼를 더 거두게 한 위대한 공사였습니다.

지난 해에 평남도에는 또 이와 같이 큰 기양 관개 공사가 시작되였습니다. 이 공사는 남포, 온천, 룡강, 증산, 대동, 강서 등 서남부의 6개 시군에 연연 1,500여리의 수로를 끌어다 밭을 논으로 풀게 할 것입니다. 이 밖에 평남도의 농촌들에서는 민영 관개 공사들도 광범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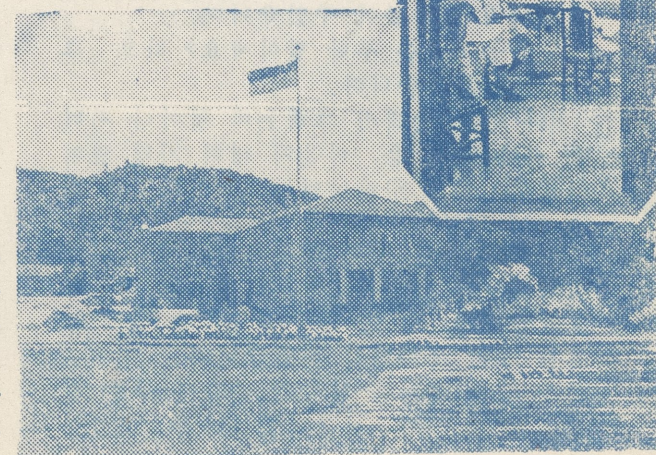
더욱이 전후에 새로 조직되기 시작한 농업 협동 조합은 급속히 발전하여 현재에는 도내 전체 농호 수의 98% 총경지 면적의 91% 이상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경대 농업 협동 조합을 비롯한 남칠, 박비 농업 협동 조합들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조합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리하여 평남도의 농촌은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더욱 빨리 청산하면서 날로 사회주의를 향해 꽃피여 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평남도에는 가지가지 자랑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름다운 명승, 고적들에는 휴양소와 야영소가 설치되여 있고 강서 약수, 룡강 온천을 비롯하여 가는 곳마다에 인민들의 문화적 휴식터가 설치되여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석암에는 중앙 소년단원 야영소가 설치되여 여기서 소년단원들은 여름을 즐겁게 지내게 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회주의의 길로 전진하는 평안남도는 오늘 5개년 계획의 위대한 전망을 안고 더욱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석암 소년단원 야영소◇

아무래도 이상했다

◇최　옥　선◇

호수'가에서 낚시질을 하던 김 일규 소년은 수풀 속에서 들려 오는 바스락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산 짐승인가?》 하고 소리 나는 수풀 쪽을 바라 보았더니 군복 옷차림을 한 사람이 머리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은 일규를 물끄럼히 바라 보더니 슬금슬금 일규 곁으로 다가 왔습니다.

일규는 놀랜듯한 얼굴로 그를 유심히 바라 보았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은 쫓겨 온 사람처럼 사방을 살피며 당황해 하는 기색이였습니다. 그러나 일규 앞에 다가 와서는 일부러 웃음을 지으며 상냥하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난 인민 군대다. 놀랄 게 없어… 저 내 부탁 좀 들어 주겠니?》 하고 일규의 머리까지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일규는 《무슨 부탁 말이예요》 하고 그를 바라 보았습니다.

《나 좀 출출해서 그러는데 엿이나 서너근 사다 주렴 응, 마을에 내려 가면 엿이 있지?》 하고 주머니에서 돈 이백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일규는 돈을 받아 쥐면서 《혼자서 엿을 세근씩이나 잡수세요?》 하고 그를 바라 보았습니다. 이 때 일규의 눈에는 물에 푹 젖은 그의 옷차림이 띄였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은 일규의 물음에 무슨 대답을 할지 몰라 머뭇머뭇하다가 《그럼… 그리구 또 많이 사와야 너하구두 나누어 먹지》 하고 대답하는 것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낚시줄을 사려 놓고 돌아서는 일규의 머리 속에는 (정말 인민 군대일가?) 하는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수상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무기까지 쥔 인민 군대가 하필 이런 산에 와서 나보구 엿을 사다 달랠가? 더구나 혼자서 엿을 세근씩이나? 옷은 왜 저렇게 젖었을가?)

일규는 이런 생각이 련이어 떠 오르자 가슴이 설레였습니다.

《간첩놈들은 갖은 방법으로 가장한다고 했지》 하고 지난 분단 모임 때 들려 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된 일규는 발'걸음을 더 옮길 수 없었습니다.

일규는 생각 끝에 (옳지, 저 놈을 집으로 데려 가자) 하고 한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일규는 문뜩 돌아 서서 군복 입은 사람에게 다가 갔습니다. 《아저씬 남조선에서 오시지 않았나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복 입은 사람은 《에끼, 그게 무슨 소리냐? 인민 군대를 보고》 이렇게 책망하는 투로 말하면서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 캐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규에게는 어딘가 당황해 하는 그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틀림 없이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일규는 《…아저씨! 저 월남했던 우리 형님도 얼마 전에 배를 타고 와서 마을의 사정을 알아 가지고 가셨는데요》 라고 슬쩍 거짓말을 꾸며 댔습니다.

그러자 군복 입은 사람은 《그래?…》 하고 일규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형이 그 전엔 무슨 일을 했으며 몇살인가 라는 둥 찬찬히 물어 보는 것이였습니다.

일규는 그의 묻는 말에 계속 꾸며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도 형님한테서 온 사람들이 들려 간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은 얼마간 생각하던 끝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잠간 있거라》 하며 언덕에 올라 서서 휘파람을 《휙! 휙》 불었습니다.

그러자 숲 속에 숨어 있던 세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규를 따라 일규네 집으로 왔습니다.

일규가 집으로 먼저 뛰여 들어가 방문을 열었을 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규는 그들을 방에 들어가 앉게 하고 밭에 나간 어머니를 데리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일규는 누구보다 먼저 마을 민주 선전실장으로 일하는 자기 형님을 찾아 갔습니다. 형님에게 모든 사연을 다 이야기한 일규는 밭에 나간 어머니를 찾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일규의 말을 듣고 밭에서 들어온 어머니도 그들을 친절히 대하면서 밥을 짓느라고 서둘렀습니다.

어머니가 김이 물물 나는 밥상을 들어다 주었을 때 굶주렸던 그들은 총을 벗어 놓고 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10리' 길을 달려 갔던 형님과 함께 내무원 아저씨들이 문을 열고 들어 섰습니다.

게거리 들어 밥을 먹던 놈들은 밥숟갈을 떨구며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무장 간첩 네 놈은 꼼짝 못 하고 체포되였습니다. 일규 동무는 이 공훈으로 군공 메달과 함께 상금을 받았습니다.

황해남도 반간첩 투쟁 전람회에는 일규 동무의 사진과 간첩 잡은 이야기가 소개되여 있습니다.

김 일규 동무는 황해남도 송화 제4 중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모범 소년단원입니다.

Pionieri

◇알바니야 소년신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바니야는 우리 나라와 친근한 형제 나라입니다.

지난 전쟁 때도 그랬지만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도 알바니야는 우리 나라를 많이 도와 준 나라입니다.

이 형제의 나라, 알바니야 소년들은 알바니야 로동당과 정부가 베풀어 주는 따뜻한 배려 속에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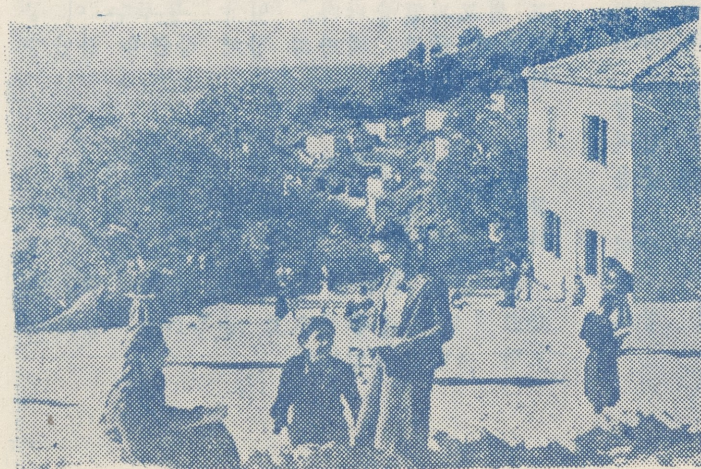
알바니야 소년들은 실험실과 도서실, 유희장, 체육 도구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학교에서 마음껏 배우고 있습니다. 교외에는 소년들을 위한 소년 궁전, 소년 공원들이 갖추어져 있고 기후가 좋은 곳 마다에는 야영지가 설치되여 있어 소년들은 여기서 즐겁게 뛰놀며 여름을 보냅니다.

지중해 연안인 두렛쓰 해수욕장은 해마다 여름이면 어린 손님들의 기쁨 어린 얼굴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해방되기 전의 알바니야는 말할 수 없는 암흑의 나라였습니다.

해방 전인 1937년에 이 나라 대학생수는 전체 65명 뿐이였고 7년제 학교와 중학교는 겨우 11교, 인민 학교는 643교 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근로 인민의 아들 딸들은 공부는 커녕 학교 문 언저리에도 가 못 본 형편이였습니다.

이렇던 나라에 오늘은 6개의 대학이 있고 여기서는 1,200명의 대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7년제 학교와 중학교는 해방 전의 31배로 증가되여 343교나 있습니다. 초등 학교는 2,140교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알바니야에서는 7년제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 23만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즐거운 수업 시간.

(2) 독서를 즐기는 알바니야 소년들.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의 알바니야 소년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복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의 수 많은 애국자들이 지주, 자본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피의 값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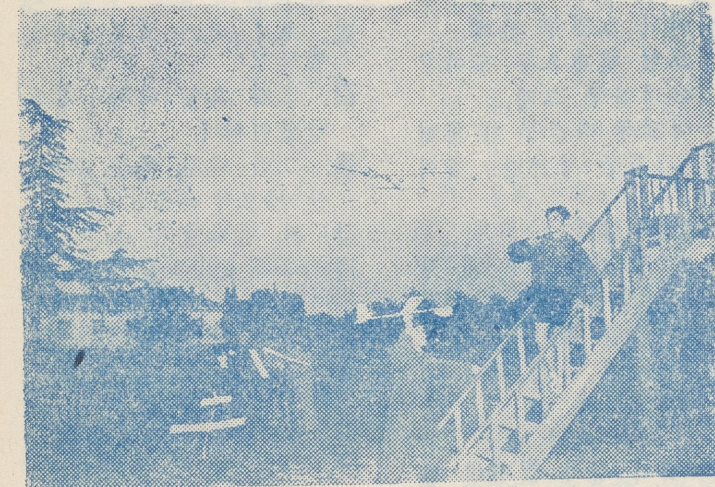
해방되기 전 알바니야는 이태리, 독일 강점자들의 압박 밑에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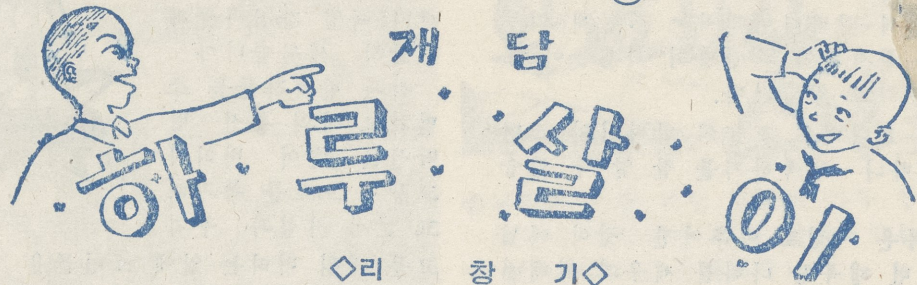
공산당원들이 자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일어 났을 때 조국을 사랑하는 알바니야 소년들도 공산당원들을 도와 이태리, 독일 강점자들과 용감히 싸웠습니다.

적과 반역자들을 소멸하고 적의 통신 련락선을 끊어 버리며 교량과 도로를 폭파하고 군사 시설과 무기고를 태워 버리는 일에 소년들은 애국자들의 훌륭한 방조자였습니다.

알바니야 소년들은 공산당원들을 비롯한 애국자들의 이 영광스러운 투쟁과 애국심을 본 받으며 부모 형님들의 애국적 전통을 이어 훌륭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붉은 바탕에 삐오네르 휘장이 새겨진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기'발을 휘날리며 조국의 산과 들, 유서 깊은 전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키웁니다.

공장과 건설장, 농업 협동 조합과 목축장들을 방문하고 사회주의로 건설되는 조국 앞날의 일'군으로 지식을 다지며 사회주의 건설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도 자랑스럽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3) 누구의 것이 더잘 뜨나—서로 자기들의 재간있는 솜씨를 자랑하며

(4) 여름 방학을 두렛쓰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소년들

◇리 창 기◇

갑. 애 너 왜 멍청하니 서고만 있니?

을. 하 참!

갑. 왜?

을. 그런 못된 것들이라구야.

갑. 못된게 뭐냐?

을. 《하루살이》 말이야.

갑. 뭐, 《하루살이》?

을. 응,

갑. 아니 얘가 지금이 어느 때라구 《하루살이》가 있단 말이냐, 함박눈이 펑 펑 내리는데.

을. 아까 보니 있구두 샜더라!

갑. 아직두 《하루살이》가 있단 말이야!

을. 그래,

갑. 모기나 파리들은 겨울만 되면 죄 죽어 없어지는데 《하루살이》가 아직두 살아 있다니?

을. 잡아 없애지 않구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때구 있는 거야.

갑. 아니 그럼 그까짓 《하루살이》나 있다구 그다지 근심될 건 뭐냐?

을. 그것들을 잡아 없애야지, 그냥 두면 안되니까.

갑. 그럼 네가 그걸 죄 잡아 없앨 참이냐?

을. 그래 모조리 잡아 없앨테야!

갑. 하하하 애두 원……

을. 왜 웃어?

갑. 그럼 파리채두 없이 뭘 가지구 잡을래?

을. 파리채 가지고는 잡을 수 없어.

갑. 그럼 파리 통?

을. 파리 통두 안돼.

갑. 그럼 뽐뿌 파리약?

을. 아니 그것두 안돼.

갑. 그럼 맨손으루 잡아?

을. 아니래두 그래.

갑. 이것두 저것두 안 되면 뭘 가지구 잡는단 말이냐?

을. 말루 잡지.

갑. 뭐 말루? 아니 한 말 두 말 쌀 되는 말루 《하루살이》를 잡아내?

을. 누가 쌀 되는 말이래?

갑. 그럼 뭐야.

을. 입으루 소리 내는 말루 해서 잡아 없앤단 말이야.

갑. 오! 난 또… 아니 말루 해서 어떻게 《하루살이》를 잡아 없앤단 말이냐?

을. 다 잡아 낼테니 보기나 하란 말이야.

갑. 그래.

을. 오늘 누가 우리 교실을 청소했을가?

갑. 글쎄…누가 했겠나 어디 알아 맞춰 봐.

을. 그건 《하루살이》가 했더라!

갑. 뭐? 《하루살이》가 교실을 청소했단 말이야?

을. 그래 그건 《하루살이》가 한게 분명해!

갑. 아니 얘가 미쳤나? 교실 청소는 아까 내가 했는데 뭐 《하루살이》가 했다구?

을. 오! 네가 교실 청소 했니?

갑. 그래 오늘 내가 청소 당번이야!

을. 그럼 네가 바루 《하루살이》로구나!

갑. 뭐 뭐야?

을. 네가 《하루살이》란 말이야.

갑. 아니 얘가 왜 이래?

을. 너 그게 청소 다 한게니?

갑. 다 한거 아니구!

을. 그것 참 잘 했더라, 책상이 모두 새 각씨가 됐던데!

갑. 뭐 책상이 새 각씨 됐어?

을. 책상 우에 먼지가 그대루 뿌옇게 분칠을 했더란 말이야.

갑. 치,

을. 그리구 교실 바닥에 신장로가 나구.

갑. 교실 바닥에 무슨 신장로가 났어?

을. 슬쩍 슬쩍 빗자루 지나간 자리 말이야.

갑. 어이구! 그거야 래일 아침에 또 청소할텐데 뭘 그래.

을. 옳아 그래서 청소를 대강 대강 했구나? 그럼 너두 저녁 밥 대강 대강 두 숟갈만 먹어두 되겠구나!

갑. 왜 두 숟갈만 먹어?

을. 오늘 대강 먹어두 래일 아침에 또 먹을텐데 뭘 그래.

갑. 헤헤…….

을. 웃긴… 누가 웃겠어? 그게 바루 자기 할 일을 어물쩍해 버리는 《하루살이》란 말이야.

갑. 오! 그게 하하하……

을. 웃긴…. 또 어떤 것이 《하루살이》에 속하는지 아니?

갑. 몰라.

을. 실례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갑. 어떤 것들,

을. 전번에 어느 애하구 어느 애 사이에 이런 얘기가 벌어졌대.

*

을.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갑. 맞다니 누가 맞았단 말이냐?

을. 누가 맞긴…. 내가 맞았지.

갑. 에끼! 등신아

을. 뭘 등신이라구?

갑. 등신 아니구! 애들한테 매 맞구 돌아 다니니 등신이지 뭐야.

을. 누가 매 맞았대?

갑. 그럼 뭐야?

을. 시험 쳐서 5점 맞았단 말이야. 5점!

갑. 오! 난 또 매 맞았단다구.

을. 에헴! (뽐낸다)

갑. 그래 무슨 시험 쳤댔니?

을. 력사 구답 시험 쳤어.

갑. 시험 문제는?

을. 《봉건 제도》란 뭣인가야.

갑. 아이구 힘든 문제구나

을. 뭘 그까짓 것 쯤이야! 난 그 문젤 잠간 동안 문밖에서 따로 외워 가지구 척 들어 갔더니…

갑. 그래서?

을. 5점이래 5점! 내 실력 있지?

갑. 참 용구나! 어쩌면 그렇게…….

을. 에헴! 너희들이 나만 보면 공부 안하구 놀기만 한다구 꾸중 댔지만! 실컨 놀고 있다가 시험 때 외워 가지고 5점만 맞으면 된단 말이야. 이게 바루 실력이거든!

갑. 글쎄…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라두 오래도록 머리 속에서 잊어지지 않구 자기 지식이 되면야 일 없지 뭐.

을. 그럼!

갑. 나한테두 그 문제 물어 볼려나?

을. 물어 볼지두 모르지 뭐, 빨리 따로 외어 두란 말이야.

갑. 나두《봉건 제도》란 뭔가를 대강은 알구 있지만 네가 한번 더 가르쳐 줄 수 없니?

을. 응 가르칠 수 있지, 에—《봉건 제도》란 건 말이야!

갑. 응.

을. 에헴! 《봉건 제도》란 건……

갑. 그래.

을. 음……

갑. 뭘 그리 오래 생각하니?

을. 《봉건 제도》란건 말이야.

갑. 그래 빨리.

을. 《봉건 제도 봉건 제도》…그…그 문젠 내 노트에 있어!

갑. 뭐? 네 머리 속엔 없구 노트에 있어?

을. 헤……

갑. 어이구 야! 네 학습장 보느니 보다 차라리 력사 교과서를 보는게 더 낫지 원.

*

을. 하하하……

갑. 하하하 그것 참 재미있는 얘기로구나.

을. 그게 바루 《하루살이》라는 거야.

갑. 알았다.

을. 이젠 내가 말하는 《하루살이》가 뭔지 알았니?

갑. 응. 나두 이제부터 그런 《하루살이》들과는 용서 없이 투쟁하겠다.

을. 그럴려면 먼저 네 머리 속에 들어 있는 《하루살이》부터 잡아 내야 해!

갑. 뭐, 내 머리 속에 《하루살이》가 들어 있어?

을. 자기 할 일을 성의 없이 어물쩍해서 그 날 하루만 지내자는 《하루살이》 몰라?

갑. 오! 그래 그래. 그럼 나 다시 가서 교실 청소 깨끗이 할께 응? (나가려 한다)

을. (갑을 붙잡으며)좀 가만 있어.

갑. 왜?

을. 왜라니(손가락으로 갑의 옆구리를 꾹 찌르며 관중들께 눈짓한다)

갑. 오! 그렇지! (갑, 을 인사) 〔끝〕

양말 뜨는 법

◇허　성　복◇

재료—무명실 (중실) 가는 참대 바늘 네 개, ·귀넓은 바늘 한 개

뜨는 법—60코를 만들어 세 개의 뜨게 바늘에 3등분으로 갈라서 둥굴하게 통으로 뜬다. 목다리부터 뜨기 시작하여 한 코는 걸뜨기로 뜨고 한 코는 안뜨기로 10 Cm 정도 뜬다.

목다리가 되면 발 뒤축을 내기 위하여 60코를 2등분하여 30코씩 두 바늘에 나눈다. 이렇게 두 바늘에 나눈 한 바늘의 것은 발 잔등분이 되고 다른 한 바늘의 분은 발 바닥이 되게 하는데 발 바닥 편의 코 수로 발 뒤축을 만든다.

발 뒤축은 그림 (2)와 같이 떠야 하는데 30코를 그냥 왔다 갔다 5cm 뜨고 발 뒤 축을 둥굴게 하기 위하여 안으로 18코 (30코의 절반에 3코 ·더한다)를 안뜨기로 뜬 후 다음 2코를 한 꺼번에 뜨면 한 코가 준다. 계속하여 한 코를 뜨면 왼편 바늘에 9코 남는다. 다음 바늘을 바꾸어 쥐고 한 코는 뜨지 않고 거저 뽑은 다음부터 보통 걸뜨기로 10코 뜨고 (거저 뽑는 코까지 11코) 9코 남기기 위해 한 코를 또 주린다. 다음에 한 코는 보통 뜨고 바늘을 바꿔 쥔다 (량편 9코씩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이 량편 쭈린 코를 계속하여 9코를 뜨면서 주리면 모두 18코로 둥그렇게 된다. 다음 량옆 코를 두 돌기 한 코 정도로 늘쿠면서 14코를 늘쿠게 되면 발잔등의 코 수와 같이 하여 둥굴게 걸뜨기를 계속한다. 또 다음에는 량편에서 늘군 코를 오른 편과 왼 편에서 한 코씩 쭈리면서 다시 60코가 되도록 떠 나간다. 이리하여 발의 길의 만큼 거의 떠 나가면 발끝을 정리하기 위하여 발 잔등분과 발 바닥분으로 나누어서 량 끝에서 두 돌이만에 발 잔등에서 2코 발 바닥에서 2코 줄인다. 그 다음 돌이에서는 줄이지 않고 다음 돌이에서 또 줄이는데 전에 줄인 2코를 기준하여 줄이면 량편에는 두 줄이 생긴다 .이렇게 계속하여 발끝에서 합하여 22코가 남을 때까지 줄인 후 남은 코를 걸뜨기 붙임으로 붙이면 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발 바닥과 발 잔등을 따로 뜨는 법인데 발 바닥을 뜰 때에는 다른 질긴 실로 뜰 수 있고 또 발 바닥이 먼저 궤졌을 때 발 바닥 분만 풀어 새로 떠서 붙이면 새 양말이 된다.

걸뜨기 붙이는 법

걸뜨기 쎄타의 팔굽이나 바지 무릎팍 등이 먼저 궤졌을 때 궤진 곳만 풀어 다시 뜬 후 그림 (1)과 같이 서로 마주 붙이면 된다. 이 방법은 장갑 손 끝, 양말 끝을 정리할 때 사용한다.

그림 (1)과 같이 코를 마주 놓고 오른 편 실 끝을 귀넓은 바늘에 꿰여서 오른 편부터 앞에 코의 안에서 겉으로 나와서 마즌 편 코의 겉으로 넣어서 안을 지나 다음 코의 밖으로 나온다. 다음에 또 앞에 코의 밖으로 넣어서 다음 코의 안에서 밖으로 나온 다음 마즌 편의 앞에 나온 코를 걸어 넣는 방법을 계속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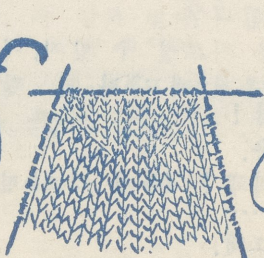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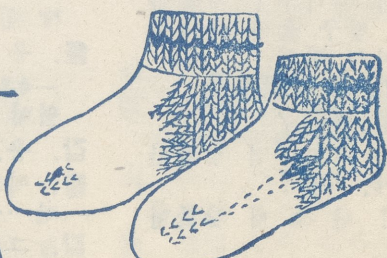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완성품

◇한　창　수◇

전라남도 라주읍에 사는 리 행선이는 학교에 못 간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찌기 아버지를 여인 행선이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놈과 리 승만 도배들이 날치고 있는 남조선 땅에서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한 터이지만 한 뙈기의 땅도 가지지 못한 그의 집 살림살이는 정말 말이 아니였습니다. 부자'집 빨래를 해주거나 방아를 찧어 주고 얻은 얼마 안 되는 량식으로 살아 가는 어머니와 행선이는 노상 굶다싶이 하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갖은 고생을 겪어 가면서도 행선이를 《국민 학교》 5학년까지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학기에 들어 와서는 《월사금》을 끝내 마련할 길 없어 행선이는 학교에서 쫓겨 났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기 집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요즘 행선이는 학교에 가서 동무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치밀어 오르군 하였습니다.

그 날 밤도 행선이는 궤진 보선을 깁고 있는 어머니 몰래 먼지 낀 책과 학습장을 어루만지며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어는 얼마나 더 배웠을가?》.

《국어》 책을 뒤적이며 이렇게 중얼거리는 행선이의 머리에는 문뜩 한 달 전 《월사금》을 안 가져 왔다고 교실에서 내쫓으며 《월사금을 가져 오면 언제든지 받아 줘》하던 선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도 나를 보구풀게야! 혹시 월사금 없이라도 다문 며칠 만은 공부를 배워 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한 행선이는 《래일 꼭 학교에 가 볼테야》하고 혼자 궁리를 하였습니다.

×　　×

이튿날 아침 행선이는 어머니가 굳이 말리는 것을 마다하고 학교로 떠났습니다.

행선이가 학교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공부가 시작된듯 운동장은 텅 비여 있었습니다. 매화 나무가 뜨문 뜨문 서 있는 운동장 모퉁이를 예돌아 오른 쪽 현관에 이른 행선이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교실 앞에 이르렀습니다.

반쯤 열려진 창문으로 교실을 들여다 본 행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찌그러진 책상과 걸상이 여기 저기 나딩굴고 있는 교실 안에는 불과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목을 쭝구리고 앉아 있을 뿐이였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어데 갔담! 나처럼 납부금을 못 내서 쫓겨 난거로구나!》. 행선이는 이렇게 속으로 외우며 교실 안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제기 놀음을 할 때면 늘상 짝패가 되여 놀던 건너 마을 철순이도 남선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야!》하는 소리와 함께 교실 문이 열리더니 담임 선생인 《김 선생》이 나왔습니다. 행선이는 그만 소스라쳐 놀라며 얼굴을 떨어뜨린채 묵묵히 서만 있었습니다.

《응!. 이게 행선이 아니냐! 오래만이구나 어서 들어 오너라!》의외에도 《김선생》의 목소리는 잔잔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행선이를 웃음어린 낯으로 반겨 주었습니다.

행선이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 월사금을 가져 왔겠지! 응 행선이》하고 선생이 묻는 것이였습니다.

무엇에 놀란듯 화닥닥 자리에서 일어선 행선이는 멍한 눈으로 선생을 쳐다 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못…못 가져 왔습니다》.

《뭘! 못 가져 왔다구! 그런데 학교는 왜 왔어!》. 잔잔하던 아까의 목소리와는 딴판 선생의 목소리는 어느덧 성에 차 있었습니다.

《당장 교실에서 나가지 못해! 돈도 안 가지고 뭣 땜에 학교에 왔단 말이야—》.

선생은 금방 회초리를 들고 달려들듯 떠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행선이의 눈에서는 어느덧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선생의 불호령에 놀란 것은 행선이 뿐이 아니였습니다. 공부하던 아이들도 눈을 둥그렇게 뜨고 선생의 입만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해! 월사금 내기 전에는 교실에 못 들어 오는걸 알지!》선생의 불호령이 다시 떨어졌을 때에야 행선이는 멍하니 서 있는 자기를 느끼며 아무렇게나 책을 움켜 쥔채 교실을 나섰습니다.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 몸을 겨우 가누며 행길에 나선 행선이는 눈 앞이 캄캄한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 앉았습니다. 《돈! 돈!》 행선이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을 굳이 말리던 어머니의 여윈 얼굴이 눈 앞에 떠올랐습니다.

학교에 다시 나온 것을 반가와 하던 동무들의 얼굴도 얼른거렸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무어라고 할가… 욕할테지… 아니야 어머니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게야… 그럴 줄 알았더면 어머니의 말대로 아에 오지나 말걸》 행선이의 머리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갈피 없이 떠오르는 것이였습니다.

《월사금, 돈》 다시금 이렇게 외여 보는 행선이의 마음 속에는 돈 안 내고는 공부 못하나》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였습니다. 아침에 멀건 밀기울 죽을 한 사발 마시기만 한 행선이의 배는 등곬에 붙은듯 조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선이는 시장'기를 잊은 듯 한 가지 생각만 더듬고 있었습니다.

《언제면 우리 집에도 돈이 생길가… 아니야 영영 안 생길거야…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도 밥도 제대로 못 먹는걸, 그럼 학교에는 아에 다시 못 가게 될테지! 그렇다면 살아서 무엇 해?》 이렇게 중얼거리는 행선이의 마음 속에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돈》 행선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외우며 벌떡 일어섰을 때입니다.

매전으로 가는 기차가 산굽이를 돌아 오며 지르는 요란한 기적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행선이는 귀익은 기적 소리를 들으며 줄곧 철'길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는 어청어청 발'길을 옮겨 철'길로 걸어 갔습니다.

시꺼먼 기차 대가리가 연기를 뿜으며 마구 다가 오고 있었습니다. 행선이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일어났습니다.

《죽자! 학교에도 못 갈 바엔 살아서 무엇 하겠》. 행선이는 얼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중얼거리고 움켜 쥐였던 책을 팽개친 때 눈 앞으로 달려 오는 기차 바퀴 밑에 몸을 던졌습니다.

× ×

마을 사람들의 급한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철'길로 달려 왔을 때 행선이는 벌써 숨이 넘어 갔습니다.

《행선아!》. 뜻밖의 일에 부닥친 어머니는 다만 한 마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 쓰러진 채 목놓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불끈 주먹을 쥐며 일어나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놈들! 네 놈들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이 몹쓸 놈들!》하고 웨치는 어머니의 몸은 미국놈과 리 승만 도배에 대한 울분으로 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헝크러진 머리칼을 쥐여 뜯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도 미국놈과 리 승만 도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의 불꽃이 확확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기쁨

평양 제9 중 학교 초급반 1학년 7반 김 영자에게는 또 하나의 기쁨이 생겼다. 그것은 모리 간상 행위를 하던 어머니를 11월 13일에 평양시 양철 가공 생산 협동 조합에 들게 한 기쁨이다.

처음 그의 어머니는 영자가 협동 조합에 들어 가자고 말만 비추어도《널더러 집안 걱정을 하라던, 공부나 잘 할게지!》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때마다 영자는 끝까지 어머니의 잘못을 깨우쳐 드려야 되겠다고 더욱 굳게 결심해 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영자의 마음을 알아 주지 못했다. 전처럼 여전히 국영 상점에서 나오는 상품을 되거리 장사하기에 바빠하였다.

11월 어느 날 영자가 하루의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 왔을 때, 어머니는 정신 없는 사람처럼 창밖을 내다 보면서 앉아 있는 것이였다. 동생에게 알아 본즉 장사'군들에게 속아 동내의를 비싼 값으로 샀다는 것이였다. 그 뿐만 아니다. 국영 상점에서 나오는 동내의를 사 주겠다고 하던 장사'군에게 5,000원을 떼운 것이다.

《어머니 보세요! 장사'군들이란 사기'군들이지요. 자기의 리익만을 생각하고 남들을 생각지 않으니깐요!》.

《듣기 싫다. 너의 어머니는 장사를 해도 그렇게 해 먹지 않았다》. 어머니는 와락 성을 내는 것이였다.

《떳떳하게 장사하시려면 협동 조합에 들어 갑시다. 협동 조합에 들어 가면 이런 근심 걱정은 없을게고 더 잘 살 수 있을게야요. 어머니는 내 마음을 왜 몰라 주나요》.

어머니가 제 속을 몰라 주는 안타까움에 영자는 눈물을 쭈루룩 흘리며 외삼촌네 집으로 달려 가서 외삼촌께 어머니가 협동 조합에 들어 가도록 말해 달라고 졸랐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어머니는 딸과 그의 외삼촌의 권고에 의하여 끝내 장사를 그만두고 협동 조합에 들어 갔던 것이다.

최 화 규

깨여진 잔

먼 옛날에 꼬깐드라는 곳에 마다리—한이라는 아주 고약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여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보물 가운데는 아주 진귀한 유리 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잔을 만든 유리는 아주 특수한 유리여서 잔에 아로 새긴 가지가지 화려한 무늬들이 신비로운 색채를 내며 아름답게 들여다 보였습니다.

마다리—한은 그 많은 보물 가운데서도 유리 잔을 가장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전 한 가운데 금으로 만든 받침대를 만들어 세우고 그 우에 하늘과 같이 맑고 아름다운 그 유리 잔을 얹어 놓고 군사들에게 밤낮 없이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마다리—한이 오랜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 온 날이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승리를 축하하여 라팔을 불게 했습니다. 라팔수들은 하늘 높이 자기 라팔들을 쳐들고 궁전의 벽들이 들썩하게 크게 불어댔습니다. 그 바람에 마다리—한이 가장 귀중히 여기던 유리 잔이 금대 우에서 떨어져 산산 쪼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마다리—한은 코구멍에서 불'길이라도 일어날듯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사흘이 지나도록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였습니다. 마다리—한은 꼬깐드의 도자기공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다는 기술자들을 모조리 불러 놓고 쪼각 난 유리 잔을 그 전과 꼭 같이 붙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산 쪼각이 난 유리 잔을 어떻게 그 전과 꼭 같게 붙여 낼 수 있겠습니까?

도자기공들은 손을 내 저었습니다. 그러자 마다리—한은 더욱 성을 와락 내며 《잔을 붙여 놓되 만일 하나의 금이라도 생긴다면 너희 놈들을 매일 세 놈씩 목매여 죽일테다》하고 웨쳤습니다.

도자기공들은 하는 수 없이 깨진 잔 쪼각을 받아 가지고 슬픔에 잠긴 얼굴로 돌아 왔습니다. 온밤 그들은 깨진 잔 쪼각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다 하는 도자기공들도 그것을 붙여 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자기공들은 모두 수심에 잠겼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죽음을 걱정하며 울었습니다.

턱 수염이 검은 늙은 도자기공 아리가 울음 소리를 듣기 애처러워서 손가락으로 귀를 막으며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울음을 그만 두시오! 그것은 소용 없는 일입니다. 무자비한 마다리—한이 우리가 운다고 죽음을 용서해 주지는 않을 것이요. 오직 우쓰만—아가라는 늙은 도자기공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소.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아오는 그는 지금도 금요일마다 시장으로 물'독을 가득 실은 달구지를 끌고 다니오. 그가 만든 독에 눈을 퍼 넣고 온 종일 뜨거운 물 속에 담구어 두어도 독 속의 눈은 녹지 않는다오. 아마 그가 우리의 죽음을 구원해 줄게오》.

도자기공들은 늙은 우쓰만을 찾아 갔습니다. 늙은이는 손님들을 친절히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자이며 제자인 드자화르를 시켜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도자기공들은 오래 동안 차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열 잔도 남아 마셨습니다. 그러나 늙은이는 그 때까지도 깨진 잔 쪼각을 뒤적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도 기울어지고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그 때야 늙은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저히 이 잔은 붙일 수 없소!》.

늙은이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도자기공들은 목놓아 울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비참한 광경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우쓰만—아가는 무엇을 결심했는지

《락심할 건 없소. 아직 나는 당신들의 죽음을 허락치 않았소! 마다리—한에게로 가서 한 해만 연기하여 달라고 하시오. 한 해는 긴 세월이요. 그 동안이면 나는 이 귀중한 잔을 꼭 붙여 내도록 할 것이요》하고 힘주어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도자기공들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 후 온 한해 동안 아무도 늙은 우쓰만—아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들어 앉아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자기공들은 마음을 못 놓고 마지막 기한의 날을 기다라고 있었습니다.

364일도 다 가고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도시의 모든 도자기공들은 광장에 모여 안타까이 우쓰만—아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벌써 구원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온 도시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무자비한 마다리—한은 그들의 이런 비통한 심정을 알아 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형대를 만들 것을 명령했고 사형 집행자들은 벌써 노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병사들은 북을 크게 울리며 사형자들을 내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천천히 광장으로 오고 있는 우쓰만—아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뒤로 알뜰하게 작업복을 입은 그의 손자이며 제자인 드자화르가 보자기를 들고 오는 것이였습니다. 광장에는 일시에 환성이 올랐습니다. 우쓰만—아가는 도자기공들에게 인사를 보내며 천천히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드자화르에게 보자기를 풀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자기 속에서는 과연 옛 모양과 조금도 다름 없는 그 귀중한 잔이 나타났습니다. 산산 쪼각이 나서 한 줌의 흙만도 못하던 그 잔이 그 어떤 아름다움으로도 비교할 수 없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기적이였습니다. 도자기공들은 몇번이고 그 잔을 들여다 보고 만져도 보았습니다. 잔은 쟁쟁한 은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사람마다의 심장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된 도자기공들은 금시 하늘에라도 날아 오를듯 기뻐했습니다.

늙은 아리는 큰 접시를 들고 도자기공들 속으로 뛰다녔습니다. 녀자들은 그 접시에 자기들의 귀'고리와 가락지들을 담았고 남자들은 돈을 담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수놓은 천들을 접시에 놓았습니다. 접시는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리는 그것을 선물로 우쓰만—아가의 무릎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쓰만—아가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민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들의 처자들의 행복을 위한 자기의 로동 속에서 벌써 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상은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늙은 우쓰만—아가의 기적적인 솜씨에

대한 이야기는 곧 전 시가지에 퍼졌습니다.

《우쓰만—아가는 기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는 마사진 물건들을 빈틈 없이 때고 붙이며 새 것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야!》.

광장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집집마다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도자기공들은 우쓰만—아가의 뛰여난 솜씨와 그 비밀을 넘겨 받으려고 매일 같이 그를 찾아 갔습니다.

도자기공들이 찾아 온 때마다 늙은 우쓰만—아가는 《—나의 일에는 아무런 비밀도 없소, 이렇게 당신들처럼 나도 진흙과 모래와 물을 혼합해서 만들 뿐이요. 다만 나는 어려서부터 열렬하게 자기 일을 사랑했고 인민을 위해 보다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기에 노력했을 뿐이요. 나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소. 누구나 해 낼 수 있는 일이죠》하고 대답할 뿐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도자기공들은 아무런 비밀도 얻지 못하고 되돌아 가군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늙은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비밀을 내 놓지 않고 썩이려고 한다고 도리여 늙은이를 욕까지 했답니다.

우쓰만—아가의 손자이며 제자인 드자화르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앞에 엎드려

《할아버지! 이 손자에게 비밀을 알려 주십시요》하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늙은 우쓰만—아가는 한 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하게 손자를 바라보고는 말없이 자기의 제작소로 들어가 버리군 했습니다.

금요일 날이였습니다. 늙은 우쓰만—아가는 여늬 때와 같이 달구지에 독을 싣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드자화르와 그의 누이 동생 쑤르마혼은 할아버지가 시장으로 간 틈을 타서 비밀을 알아 내려고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제작소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작소 한 구석에 있는 진흙 구덩이 속에서 커다란 봇다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였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한해 전에 도자기공들이 가져 왔던 산산 쪼각이 된 잔 쪼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 잔을 만들어 바쳤구나! 그렇게 훌륭한 잔을 만들어 내고서도 도자기공들을 위해 산산 쪼각 난 잔을 맨듯이 침묵을 지키시섰구나!!》.

지금에 와서 그는 할아버지가 왜 자기에게까지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를 알았습니다. 드자화르의 머리는 자꾸 숙으러져만 갔습니다.

저녁 늦게야 우쓰만—아가는 시장에서 돌아 왔습니다.

드자화르는 달려 나가 할아버지를 맞이하고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늙은 할아버지는 그 때에야 비로소 손자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였습니다.

《나의 귀동아! 천년을 살라! 그리고 항상 자기의 일을 사랑하라. 나는 네가 이 늙은 할아버지보다 더욱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은 드자화르의 젊은 가슴 속 깊이 간직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간직되였습니다.

(1957년 5호 삐오네르 잡지에서
김 인국 역)

그림 이야기

온달과 평강 공주

림 영환 그림

(1) 고구려 25대 평강왕 (559~590년)때에 평양성 밖 어느 마을엔 온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앞 못 보는 늙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그의 집은 몹시 가난했지요.

온달은 키가 크고 얼굴이 우람차게 생겼으나 그의 몸에는 언제나 누데기를 걸치고 다녔으며 머리는 귀를 덮어 보기 흉할 정도였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꾀죄죄한 그를 불러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어머니에게 대한 그의 효성에는 동네 사람들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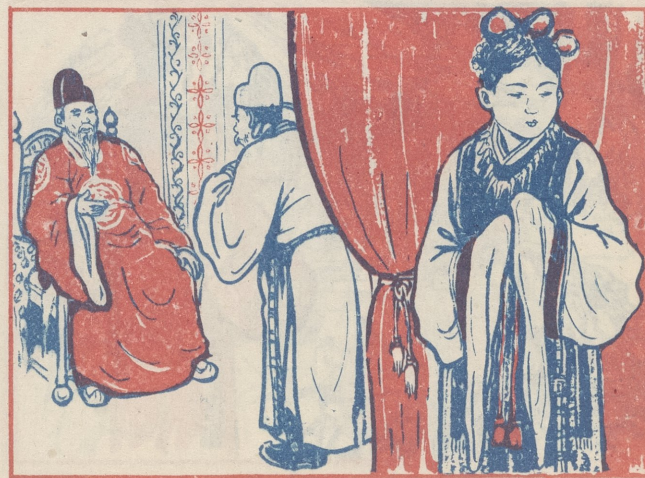
산에 가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거나 남의 집을 찾아 다니며 밥을 빌어 오는 것도 어머니를 위해서였답니다.

(2) 그 때 고구려 평강왕에게는 성품이나 지혜가 남다르고 예쁜 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어려서 잘 우는 버릇이 있어 《울음쟁이 공주》란 별명까지 들었지요. 공주를 둘도 없이 사랑하는 왕은 공주가 울 때마다 곧잘 우스개 소리를 하군 했습니다.

《너 그렇게 자꾸만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 라고.

(3) 그 후 공주가 자라서 열여섯 살이 되였을 때 왕은 부마 (임금의 사위)를 구하였습니다. 이 때 제일 먼저 부마'감으로 꼽힌 것은 상부 고씨의 아들이였습니다.

마침내 왕은 젊은 무관으로서 남자답고 활 잘 쓰며 말 잘 타기로 이름 난 상부 고씨의 아들을 부마로 결정했어요.

(4) 궁중에서는 고씨의 아들을 부마로 정하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날 왕은 물론 고씨의 아들과 신하들까지도 화려하게 차리고 나타났지요.

그런데 공주만은 평시 때와 다름 없는 단장과 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주는 어떻게 된 셈인고》. 왕은 놀라며 이렇게 물었지요.

《죄송하오이다. 상감마마께서는 일찌기 분부하시기를 소녀는 크면 온달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 분부가 어찌된 일이오니까》.

《그러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단 말이냐?!》.

왕은 대단히 노해서 공주를 당장 궁중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5) 공주는 그 날로 궁중을 떠나 온달의 집을 찾았습니다.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선 산 벼랑 밑에 있는 온달의 집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지요.

집안은 텅 비고 소경 어머니가 혼자서 누더기를 걸치고 앉아 있을 뿐이였답니다.

(6) 《저는 이 나라 공주입니다. 아드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공주는 온달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공주》 라는 소리에 깜짝 놀랜 온달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내 아들은 가난한 것 밖에 죄가 없소. 왜 우리 아들을 나라에서 찾소. 그 애에겐 아무 죄도 없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나 청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나 온달 어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7) 하는 수 없이 공주는 온달을 찾아 떠났습니다. 막 산 기슭에 닿았을 때 공주는 온달과 마주쳤지요.

눈이 둥그래 서 있는 온달에게 공주는 찾아 온 리유를 말했어요.

《저만큼 물러서오. 내 눈에는 당신이 귀신이나 여우로 밖에는 보이지 않소. 공주가 나에게 시집을 오다니…》 하고 온달은 믿지 않았지요

공주는 실망하고 말았어요.

(8) 그러나 공주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날 밤을 온달의 집 삽작문 앞에서 밝힌 공주는 이튿날 아침에 또 다시 온달과 그의 어머니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서야 공주의 아름다운 마음을 알게 된 그들은 공주를 반겨 맞아 드렸습니다.

(9) 이리하여 온달의 안해가 된 공주는 궁전을 떠날 때 가지고 온 금붙이, 은붙이로 먼저 집과 소 그리고 열마간의 논과 밭을 샀습니다.

공주는 온달과 같이 살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였답니다.

옛날 때를 벗은 온달은 얼굴 생김과 골격이 우람차고 정말 버젓한 사나이로 되였습니다.

(10) 온달은 공주의 권고에 따라 부지런히 활 쏘기와 무예를 닦았습니다.

무예에 남다른 솜씨와 열성을 가진 온달은 산과 들로 말을 달리고 활을 쏘아 짐승을 잡았습니다.

이리하여 온달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훌륭한 기사로 될 수 있었답니다.

(11) 마침내 온달에게는 좋은 때가 왔습니다.

새해 3월 3일—봄 제천 (나라에서 풍년들기를 비는 제사의 날)에 온달도 제천 사냥 경쟁에 기사로 나가게 되였지요.

이 날 락랑구 언덕은 평강왕의 일행을 비롯하여 궁중 사람들과 고구려 방방곡곡에서 모여 든 수많은 사람들로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공주도 백성의 한 사람으로 수수한 옷차림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군중 속에 끼워 있었지요.

(12) 홍겹고 찬란한 제천은 언제나 다름없이 사냥 놀이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수백명의 기사들이 사냥 터에 일제히 줄을 지은 가운데는 여전히 뽐내는 상부 고씨의 아들과 위풍이 당당한 온달도 있었습니다.

(13) 이윽고 출발의 신호가 내렸지요.

수백의 용사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장내의 군중들 사이에는 환성이 울랐어요.

《누가 장원을 할가?》.

《글쎄 모르기는 하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뛰여난 기사가 떨어지기 전에야 그 분(고씨의 아들)을 당할 이가 있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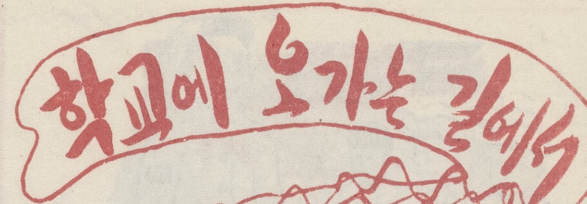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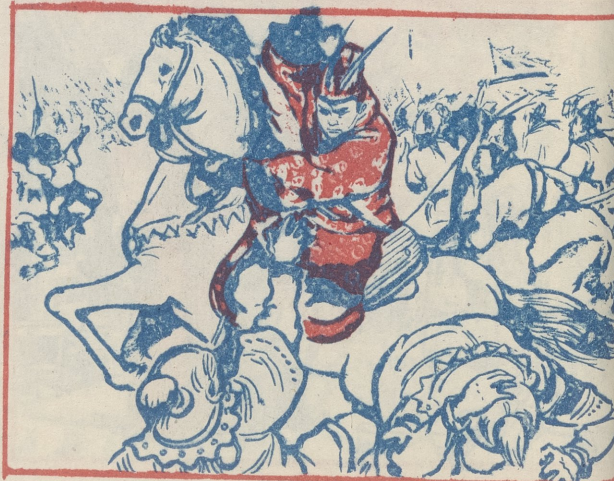
왕은 물론 신하들과 군중들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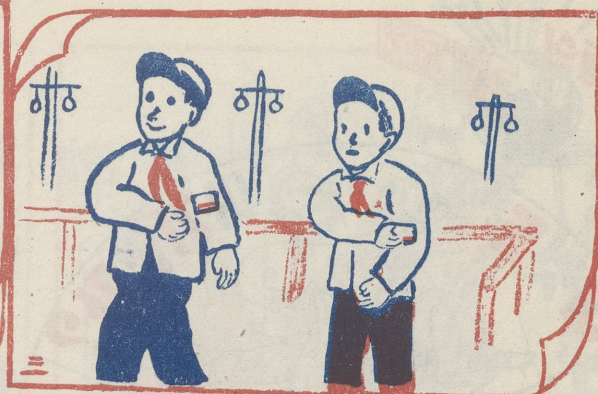
(14)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일 먼저 큰 송아지만한 메'돼지 한 마리를 메여다 놓은 사람은 고씨의 아들이 아닌 온달이였습니다. 환성이 올랐습니다. 왕 앞에 온달의 이름을 아뢰이자 왕은 저윽이 놀라며 온달에게 물었어요.

《온달이라니? 그러면 그 바보 온달과는 어떻게 되느냐?》.

《네, 소인이 바로 그 바보 온달로 아뢥니다》 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5) 그 후 후주라는 나라의 무제가 고구려의 료동 땅을 침범하였을 때입니다.

온달은 고구려군의 앞장에 나서 후주의 침략군을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답니다. 평강왕은 그 때에야 비로소 온달이 거둔 전공과 용맹에 감탄하여 그를 부마로 불렀으며 온달에게 《대형》이라는 큰 벼슬을 주었습니다.

제 것은 째째하다고

1. 열성자로 선거되였을 때

3. 남이 단 두 줄을 보고 제 것은 째째 하다고

2. 처음에는 일에도 열성이 있었건만

4. 열성자 표식까지 슬쩍 뜯어 호주머니에…
그러니 선거한 동무들 앞에 무어라 말하랴?

평양 제33 중 학교 1의 1 리 련 식

《최 승 대》
평양 제 3중학교 2학년
-김 영 배 그림

《련 광 정》
평양 제 3중 학교
차 용 철 그림

새로 나온 책들

소년 소설집

성난 바다

이 소설집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역도놈들이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공화국 남반부 어린이들의 비참한 생활 모습을 통하여 하루 속히 우리 나라를 평화스럽게 통일해야 한다는 절실한 이야기들로 엮어진 책입니다.

이 소설집에는 강 효순 작 《창규의 죽음》과 유 충록 작 《불'기둥》 신 영길 작 《성난 바다》의 3편이 실려 있습니다.

《창규의 죽음》에서는 주인공인 창규가 어찌하여 죽음의 길을 택했는가 하는 눈물 겨웁고도 원통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며 《불'기둥》은 공화국 남반부의 태식이란 소년을 통하여 미제국주의놈들과 리 승만 역도놈들이 어떻게 어린이들로부터 학교를 빼앗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원쑤놈들을 반대해 싸우는가 하는 이야기를 감명 깊게 보여 주는 작품이며 《성난 바다》는 제주도 앞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서귀포 국민 학교를 무대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공부를 계속하려다 못해 놈들에게 학교를 쫓겨 나는 감득이란 소년을 통하여 하루 속히 우리 나라가 통일되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는 작품입니다.

죠나탄 스위프트 저

갈리바 려행기

이 책은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 죠나탄 스위프트가 쓴 장편 소설이다.

이 소설의 내용은 《소인국 려행기》, 《대인국 려행기》, 《비도 려행기》, 《말나라 려행기》의 4편으로 되여 있는데 작가는 이 모든 가상적인 왕국을 무대로 하여 당시 영국의 사회적 모순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다.

우리는 난쟁이들만이 사는 소인국 그리고 그들보다 몇 10배나 큰 거인들이 사는 대인국 등의 려행을 통하여 가엾은 그 나라 인민들의 괴이한 생활과 풍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당시의 영국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이며 영국 정치에 대한 신랄한 조소인 것이다.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당시의 영국 인민들이 얼마나 암담하고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리 원우 리 동무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7년 12월 2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7년 12월 30일 발행 《소년단》 1958년 제 1 호 (총99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734 값 25원 80,000부 발행

추위를 박차고

리 봉금 촬영